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91호 【루계 제24339호】 주체102(2013)년 10월 18일 (금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꽁고공화국 대통령이 친서와 선물을 보내여왔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데니 싸쑤 느게쏘 꽁고공화국 대통령이 친서와 선물을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보내여온 친서와 선물을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꽁고공화국 정부대표단 단장인 가꼬쏘 쟝 클로드문화 및 예술상이 1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로씨야 21세기관현악단이 선물을 드리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로씨야 21세기관현악단이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빠벨 오브쌴니꼬브단장 겸 수석지휘자가 17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태양상과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여러 단위에 모시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태양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가 향산군, 고성군, 벽동군, 강령군,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재령광산에 모셔졌다.

한평생을 오로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어버이장군님께서는 향산군과 고성군을 거듭 찾으시여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현지지도의 자욱을 새겨가시며 군들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고 묘향산과 금강산을 세계적인 명산,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훌륭히 꾸려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의 나날들에 벽동군, 강령군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며 지난날 이름없던 고장들을 행복의 락원으로 전변시켜주시고 인민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재령광산에는 조국의 만년재부를 마련하기 위한 대자연개조사업과 철광석생산에서 전환이 일어나도록 우리 로동계급을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신 절세위인들의 령도의 자욱이 뜨겁게 어리여있다.

해당 단위들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모자이크벽화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모시기 위해 충정을 바치였다.

피현군의 일군들과 인민들은 만경대혁명학원 원아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충렬리에 정중히 모시였다.

여러 단위에 모자이크벽화를 모신것은 백두의 천출위인들을 천세만세 높이 모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의 발현으로 된다.

모자이크벽화를 모시는 행사들이 해당 단위에서 진행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 꽃바구니 진정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이 꽃바구니들을 진정하였다.

만수대언덕과 인민무력부에 높이 모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찾는 대회참가자들은 주체적인 군건설사상과 로선을 제시하시고 정력적인 령도로 중대를 기본전투단위로 튼튼히 꾸려 인민군대를 선군혁명의 기수, 주력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에 넘쳐있었다.

경건한 마음을 안고 그들은 우리 혁명무력의 창건자이시며 건설자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였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등의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참가자들은 백두산혁명강군을 키우시여 선군혁명승리의 력사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보며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올리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안겨주신 혁명의 총대를 억세게 틀어쥐고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와 금수산태양궁전을 결사보위하며 중대를 백방으로 강화하여 사회주의조국수호전과 경제강국건설에서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일당백기상을 힘있게 과시할 열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인민군군인들처럼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으로 새로운 위훈을!

대동강자라공장 능력확장공사 적극 추진

618건설돌격대 인민보안부사단에서

대동강자라공장 능력확장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다.

618건설돌격대 인민보안부사단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민물왕새우양식장건설을 기본적으로 해제낀데 이어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무슨 일이나 해내고야말겠다는 사상적각오를 가지고 달라붙어야 하며 일단 시작한 일은 끝장을 보는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합니다.》

대동강자라공장은 예로부터 귀한 보약재로 널리 알려진 맛있고 영양가가 높은 자라를 우리 인민들에게 먹이시려고 마음써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에 의하여 건설된 종합적인 양식기지이다.

이 공장에서는 앞선 양어방법들을 받아들여 자라뿐아니라 왕개구리, 민물왕새우, 열대붕어를 길러 생산성을 부쩍 높이고있다.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는 능력확장공사는 수십만㎡의 부지에 10여개 호동의 자라양식장과 민물왕새우양식장 등 생산건물들과 부속건물들을 새로 건설해야 하는 방대한 대상건설이다.

이 공사가 끝나면 자라와 민물왕새우, 왕개구리, 열대붕어생산이 더욱 늘어나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는 또 하나의 귀중한 재부가 마련되게 된다.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며 우리 인민들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해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몸소 공사정형을 여러차례나 알아보시고 필요한 대책들을 세워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은정이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가닿게 하기 위해 공사지휘부에서는 모든 로력을 집중하여 공사속도를 부쩍 높여나가고있다. 사단장 박재석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공사속도를 높이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2차례의 기공구전시회를 조직하였다. 그리하여 어려운 조건에서도 공사를 중단없이 내밀수 있도록 90여종의 1만 5천여점에 달하는 각종 공구들과 로동보호물자들이 마련되였다.

공사량이 방대한 조건에 맞게 일군들은 력량편성을 잘하고 생산건물과 부속건물, 도로포장, 하부망공사를 비롯한 모든 공사를 립체적인 방법으로 내밀었다. 또한 공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앞장에서 풀어나가며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혁신의 돌파구를 열어나갔다.

여기에 고무된 돌격대원들은 굴착, 막돌 및 자갈깔기, 콩크리트치기 등을 힘있게 내밀어 자라비육못기초공사를 단 한주일동안에 끝내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그 기세로 분발해나선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새로운 공법과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이면서 공사를 빠른 속도로 내밀고있다.

혁신은 평안남도인민보안국대대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속에서 일어나고있다. 이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자체로 많은 벽돌을 생산하여 민물왕새우양식장건설을 다그쳤다. 또한 수십일동안에 공사에 필요한 1 000여t에 달하는 각종 크기와 색갈의 인조석을 확보함으로써 생산호동들의 인조석미장공사를 제때에 질적으로 하는데 기여하였다.

황해북도인민보안국대대에서는 공사속도를 높일수 있는 앞선 시공방법을 받아들이고 사회주의경쟁을 벌리면서 일자리를 폭폭 내였다. 이곳 일군들은 기중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던 지붕트라스설치를 성과적으로 해제낄수 있는 기발한 착상을 내놓고 대담하게 실천하였다.

인민보안부사단 중대장 김철진동무를 비롯한 돌격대원들은 판만곡기를 자체의 힘으로 창안제작하여 판늘이기작업을 빠른 시일에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평안북도, 황해남도, 함경북도, 남포시인민보안국대대의 돌격대원들도 완공의 날을 앞당길 자신만만한 투지와 불타는 애국의 열정안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리며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618건설돌격대 인민보안부사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불같은 열정과 줄기찬 투쟁에 의하여 공사성과는 더욱 확대되고있다.

본사기자 황연옥

대상설비생산에서 련일 혁신

룡성기계련합기업소에서

나라의 위력한 대상설비생산기지인 룡성기계련합기업소에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줄 중요대상설비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자랑스러운 투쟁전통을 가지고있는 룡성의 로동계급은 지난 시기 간고한 시련속에서 대형기계설비를 만들던 그때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여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중요대상설비생산에서 위훈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이악하게 뚫고나가면서 김철과 성강을 비롯한 제철, 제강소들과 발전소, 탄광, 광산들에 보내줄 대상설비생산에서 련일 집단적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밑에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으로 꾸려진 선군주철공장과 선군압축기직장에서 대상설비생산을 다그치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설비들을 눈동자와 같이 애호관리하면서 각종 소재와 압축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기계설비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주철직장과 단조직장, 1, 2제관직장, 1, 2주강직장을 비롯한 소재부문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선행공정을 맡아나선 높은 책임감을 자각하고 소재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그들은 흥남비료련합기업소와 허천강발전소, 부전강발전소, 흥남제약공장을 비롯한 인민경제 중요부문과 단위들에 대상설비들을 제때에 생산하여 보내줄 애국의 한마음을 안고 여러가지 기술혁신안과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날마다 실적을 올리고있다.

1, 2, 3, 4기계직장과 대형공작기계직장을 비롯한 가공부문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마식령군인건설자들의 투쟁정신과 일본새를 본받아 탄광과 발전소들에 보내줄 설비와 부분품가공과 조립속도를 1.3배이상으로 높여나가고있다.

원료, 자재부문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원료와 자재를 앞질러 보장해주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기수직장, 공무직장, 동력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도 생산을 믿음직하게 뒤받침해주기 위하여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고있다.

특파기자 박동석

기술을 혁신하여 많은 전력을 생산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화력발전소들에서 전력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전력생산에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을 적극 받아들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몇해전 련합기업소를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력은 현대산업의 기본동력이며 전력이 없이는 공장, 기업소들을 움직일수 없을뿐아니라 인민들의 안정되고 문화적인 생활도 보장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북창의 로동계급은 경제강국건설에서 자기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항상 명심하고 전력증산에 모든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련합기업소의 책임일군들은 전력생산을 늘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를 기술혁신에서 찾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적은 연료로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에로 기술자, 로동자들을 적극 불러일으켰다.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기술자, 로동자들속에 들어가 기술혁신목표를 높이 세우고 모두가 한가지이상의 기술혁신안, 창의고안을 내놓도록 적극 이끌어주었다. 이에 고무된 련합기업소의 기술자, 로동자들은 자기들이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기술혁신사업에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나갔다.

련합기업소의 기술자, 로동자들은 발명총국, 전력공업성의 일군들과 합심하여 수입에 의존하던 급수뽐프날개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훌륭히 제작완성함으로써 전력생산을 늘이면서도 국가에 많은 리익을 주었다. 급수뽐프날개제작을 맡은 기술집단은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며 탐구의 낮과 밤을 이어갔다. 련합기업소의 책임일군들은 현장에 자주 나와 기술자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협의회도 하고 기술적인 문제도 토의하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었다. 그리하여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급수뽐프날개를 훌륭히 제작설치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련합기업소 4.15기술혁신돌격대원들은 함흥수리동력대학의 교원, 연구사들과 합심하여 종합생산지령실의 감시체계현대화를 실현함으로써 전력생산을 안전하게 진행할수 있게 하였다.

주강직장의 일군들과 기술자들, 공업시험소의 기사들도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 뽈련속주조기를 훌륭히 제작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곳 기술자들은 여러가지 합리적인 기술혁신안들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수십개의 뽈형타를 새롭게 제작하여 설치함으로써 뽈의 수명을 종전보다 1.5배로 늘일수 있게 하였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함흥수리동력대학 교원, 연구사들과 지혜를 합쳐가며 축회리식농담바나에 의한 보이라기술지표를 개선함으로써 보이라의 안정성을 더욱 높일수 있게 하였다.

이밖에도 련합기업소의 기술자들은 빛굴절법에 의한 신형공기차단기를 비롯하여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을 받아들여 전력생산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특파기자 리혁철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

평양도착

【평양 10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선군의 위력으로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기상을 만방에 떨쳐나가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가 수도 평양에서 진행된다.

전당, 전군, 전민의 커다란 관심속에 인민군대의 세포인 중대를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일당백의 전투대오로 강화하는데서 공훈을 세운 전군의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이 영광의 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17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의 열혈의 동지, 총대동지라는 영예드높이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에서 선군혁명의 척후대, 억척의 지지점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는 대회참가자들을 태운 렬차들이 역들에 들어섰다.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라는 구호판이 세워져있는 평양역과 대동강역, 서평양역 구내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크나큰 은정에 의해 평양에 온 대회참가자들을 맞이하는 환영열기로 설레이고있었다.

조선인민군 군악단이 울리는 환영곡이 역구내를 진감하는 속에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최룡해동지와 인민무력부 일군들이 대회참가자들을 뜨겁게 맞이하였다.

꿈결에도 달려와 안기고 싶던 수도 평양에 도착한 대회참가자들의 얼굴마다에는 건군력사상 처음으로 대규모의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를 마련해주시고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이 차넘치고 있었다.

군력을 불패로 다지고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위훈을 세운 대회참가자들에게 수도시민들이 손을 흔들며 군민의 따뜻한 정을 나누었다.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를 통하여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가는 백두산혁명강군의 불패의 전투적위력을 힘있게 과시할 혁명적열의에 넘쳐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며 주체의 태양이시다

날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충정은 더욱 뜨거워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이끄시는 오늘의 시대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모습이 백두산대국의 숭고한 영상으로 빛나고 절세위인들의 념원이 현실로 펼쳐지는 영광스러운 시대이다.

주체의 영원한 태양, 이 성스러운 존칭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한생이 함축되여있고 펼치면 바다가 되고 쌓으면 하늘에 닿을 절세위인들의 업적이 어리여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태양으로밖에 달리는 부를수 없는 위인중의 위인이시고 20세기를 대표하고 21세기를 향도하는 위대한 혁명가, 희세의 정치원로이시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의 존함을 투쟁의 기치로 높이 모시고 나아가는 선군조선의 앞길에는 영원히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1

혁명하는 인민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는 인생의 영광을 안겨주고 백승에로 이끌어주는 삶의 태양, 혁명의 태양이다.

태양은 만물의 어머니이고 모든 생명활동의 원천이다. 수령의 혁명사상은 투쟁의 앞길을 밝히는 태양의 빛과 같고 수령의 사랑과 은덕은 따사로운 태양의 열과 같으며 만민을 끌어당기는 수령의 포옹력은 태양의 인력과도 같다. 태양이 없는 지구를 생각할수 없듯이 수령을 모시지 못한 혁명도 있을수 없다. 혁명하는 인민들이 수령을 태양으로 모시고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바치는것은 너무나도 응당한것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력사는 위대한 주체의 태양, 선군태양의 성스러운 력사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인민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천재적사상리론과 탁월한 령도로 자주의 새시대를 개척하시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전진시키시여 주체혁명위업완성을 위한 만년초석을 쌓으신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며 주체의 태양이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그 존함은 혁명의 태양을 영원히 받들려는 조선의 혁명가들과 인민들의 의지가 그대로 깃든 성스러운 존함이다. 조선의 찬란한 태양으로 솟아오르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지닐수 없는 천재적인 사상리론적예지와 비범한 령도력, 한없이 고매한 풍모를 지니시고 우리 인민뿐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류의 광명한 앞길을 밝혀주시며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항일의 전구에서 백두광명성으로 솟아오르신 때로부터 근 70성상 태양의 빛발이 되시여 어버이수령님의 위업을 곧바른 승리에로 이끌어오시였다. 만경대에서 시작되고 정일봉에서 이어진 태양의 력사가 있기에 20세기와 21세기가 조선의 존엄이 최상의 경지에 이른 영광의 세기로 빛나고있는것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의 빛발은 이 강산 그 어디에나 비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직후부터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걸으신 57만 8,000여㎞의 현지지도의 길에서 기울이신 크나큰 로고, 어버이장군님께서 지구둘레를 근 17바퀴나 돈것과 맞먹는 167만 4,610여리의 초강도강행군길을 걸으시며 바치신 애국헌신은 그 무엇으로써도 헤아릴수 없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생애야말로 광휘로운 태양의 빛발로 인민대중의 투쟁의 앞길을 밝혀준 한평생이였으며 따사로운 열과 정으로 인민들을 한품에 안아 혁명가로 키워준 고귀한 생애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모시였기에 우리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극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세계자주화위업이 곧바른 항로를 따라 전진하게 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의 력사는 오늘도 변함없이 흐르고있다.

태양의 위대함은 그 영원불멸성에 있다. 혁명을 개척하고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은 비록 우리곁을 떠나시였으나 절세위인들의 존함은 오늘도 우리 혁명의 승리의 기치로 변함없이 빛을 뿌리고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사상은 우리의 투쟁의 앞길을 밝히는 불멸의 지침이고 대원수님들의 태양상은 우리 인민에게 크나큰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불멸의 영상으로 안겨오고있다. 온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지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구호가 억년 드놀지 않을 신념으로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굳건히 자리잡고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주체의 태양으로 흠모하며 따르려는것은 위도와 경도를 초월한 시대적흐름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서거하신 이후에도 수많은 나라들에서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해드리고 지성어린 선물들을 보내오고있으며 백두산절세위인들을 칭송하는 정치행사들과 예술축전들, 주체사상세계대회가 성대히 진행된것은 력사에 특기할 일이다. 생존하실 때에도 태양으로 칭송받고 서거이후에도 영원한 주체의 태양으로 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과 같으신 위인은 이 세상에 없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고계시는것은 절세위인들께서 창시하신 혁명사상이 위대하기때문이다.

수령의 혁명사상은 인민들의 앞길을 밝히는 태양의 빛발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창시하시고 발전풍부화시키신 혁명사상,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에는 우리 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실현을 위한 진로가 명백히 밝혀져있다. 주체의 철학적원리와 인간개조, 사회개조, 자연개조에 관한 사상,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리론, 혁명적령도리론과 대중지도방법,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밑에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할데 대한 사상을 비롯하여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리론들은 어제와 오늘뿐아니라 먼 앞날에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보검으로 빛을 뿌리고있다. 특히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사상은 21세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앞길을 환히 밝히는 투쟁의 홰불로, 백승의 기치로 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정립체계화하고 심화발전시키신 선군혁명사상이 있기에 제국주의강권과 전횡이 날로 로골화되고있는 오늘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고수하고 사회주의를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갈수 있는 지도적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틀어쥐고나갈 때 해결하지 못할 시대적과제가 없고 뚫지 못할 난관이 없다는것이 우리 혁명의 력사적총화이다.

선행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이 영원한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한것은 시대적제한성을 극복하지 못한데 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사상은 인민대중이 누구나 공감하고 받아들일수 있는 가장 인민적인 사상이고 발전하는 시대적요구를 반영한 가장 창조적인 사상이며 한없이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내용을 담고있는 백과전서적인 사상인것으로 하여 세월이 갈수록 커다란 생명력을 발휘하고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적권위는 오늘도 최고봉이고 앞으로도 영원불멸하다. 그 어떤 시대적물음에도 완벽한 해답을 주는 위대한 혁명사상을 밝히시였기에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오늘도 혁명의 뇌수, 인류의 영재로 칭송받고계신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조국과 혁명, 시대와 력사앞에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것으로 하여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신다.

수령의 영생은 업적의 영생이다.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끄는 과정에 쌓은 업적이 세대를 이어 후대들을 위한 고귀한 재부로 빛날 때 수령은 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하는것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걸으시며 간고한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나날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창건하시고 강화발전시켜오신 당, 국가, 군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력한 선군조선의 재보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천대받고 억압받던 약소민족이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시대의 흐름을 주도해나가는 기수로 자라나고 수령, 당, 대중의 불패의 일심단결이 이룩되였으며 우리 조국땅우에 민족번영의 일대 전성기가 펼쳐지게 되였다. 우리 조국의 국력이 최상의 경지에 이르고 우리 경제가 지식경제형경제강국을 건설하는 길에 들어서게 되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디디고 올라설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된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이룩하신 혁명업적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특히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혁명의 찬란한 미래를 위한 령도의 계승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여 우리 조국의 천년미래를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신것은 력사에 길이 빛날 업적중의 업적으로 된다. 위대한 장군님에 의하여 선군혁명의 대를 꿋꿋이 이어나갈 계승위업이 빛나게 해결되고 우리 당의 조직사상적기초가 튼튼히 다져졌기에 태양의 위업이 굳건히 계승되고있다.

우리 조선, 우리 인민이야말로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이룩하신 업적을 토대로 하여 강성번영의 길을 개척해나가는 태양조선, 태양민족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고귀한 한생을 바치시며 마련하신 업적에는 우리 민족이 자자손손 부흥할수 있는 재보가 다 깃들어있다. 이 업적을 틀어쥘 때 조선이 빛이 나고 이것을 놓치면 조선은 빛을 잃는다는것, 이것이 천만군민이 주체의 태양을 따르는 길에서 간직한 철의 진리이다.

2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려는것은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확고한 신념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고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물려주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의무이고 숭고한 도덕의리이다.》

위인의 사상과 위업은 위인만이 계승하고 빛내여나갈수 있다. 수령을 변함없이 높이 받들어모시고 수령의 사상과 뜻대로 혁명을 이끌어나가는 충직한 후계자가 있어야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는 력사적위업을 최상의 수준에서 실현해나가고계시는 숭고한 충정과 도덕의리의 최고화신이시다. 일찌기 두분의 백두산위인을 몸가까이 모시고 태양의 위인적풍모를 그대로 이어받으신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든 사색과 활동은 백두산대국의 영상이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사상과 위업, 그 태양의 모습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기 위한것으로 일관되여있다. 민족의 대국상을 당한 시기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기 위한 거창한 사업을 펼치신분도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며 금수산태양궁전을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존엄을 상징하는 수령영생의 대기념비로 훌륭히 꾸리고 이르는 곳마다에 절세위인들의 태양상과 영생탑을 정중히 모시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오신분도 우리의 원수님이시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하는것을 최대의 사명으로 내세우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 조선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존함으로 끝없이 빛을 뿌리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켜나가시는 절세의 위인이시다.

수령에 대한 최대의 충정은 수령의 사상을 계승발전시켜나가는데 있다. 수령의 혁명사상이 빛나게 구현되는 위대한 현실속에서 수령의 력사는 줄기차게 흐르는 법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사상을 주체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보검으로 틀어쥐고나가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든 사상리론활동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사상의 진수를 굳건히 고수하고 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이기 위한것으로, 혁명실천의 요구에 맞게 끝없이 발전풍부화시키는 정력적인 사색과 탐구로 이어지고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자》**를 비롯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은 태양의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갈수 있게 하는 생명선으로 되고있다.

특히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신것은 우리 당과 혁명, 조국과 민족의 번영을 위한 길에서 쌓으신 가장 거대한 업적으로 된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이룩하신 사상리론적재부들을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가장 귀중한 재부로 여기시고 주체의 보물고를 풍만하게 가꾸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리론적예지에 의하여 우리 혁명의 앞길에 양양한 전도가 펼쳐지고있다.

혁명의 운명,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수령의 사상계승, 위업계승에 달려있다. 세계사회주의운동사는 수령의 사상을 계승하지 못할 때 혁명의 전취물이 하루아침에 허물어지고 수령의 권위가 여지없이 훼손당하게 된다는 쓰라린 교훈을 남기고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사상을 높이 드시고 강성부흥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기에 우리 조국은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태양의 나라로 빛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위대한 수령님식, 장군님식대로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시는 백두의 선군령장이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장구한 기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방식대로 혁명을 전진시켜왔다. 위대한 수령님식, 장군님식에는 모든것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는 독창적인 혁명방식이 있고 혁명앞에 가로놓인 시련과 난관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가 하는 묘술도 있으며 원쑤들은 어떻게 때려부셔야 하는가 하는 백승의 진리도 다 있다. 조선혁명의 승리이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방식의 승리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식대로 우리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고계신다. 천만대중의 정신력을 믿고 대중을 발동하여 혁명을 전진시키고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굳게 묶어세워 우리 사회의 일심단결을 굳건히 다지시는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문헌들을 깊이 연구하시며 절세위인들께서 가르쳐주신대로 혁명을 이끌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풍모는 우리 혁명전사들을 끝없이 감동시키고있다. 그 어느 단위를 찾으시여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사적교양을 강화할데 대하여 간곡하게 가르쳐주시고 절세위인들의 유훈관철과 령도업적을 빛내이는 사업이 잘되는데 대하여 그처럼 만족해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대원수님들의 뜻과 념원이 현실로 꽃펴나고있다.

선군은 영원한 승리의 길이며 우리 당의 변함없는 혁명방식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한평생 들고오신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드시고 선군혁명의 새시대를 펼쳐나가신다. 민족의 대국상을 당한 시련의 시기에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신 력사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끊임없는 선군장정을 이어가시며 총대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시고 강성부흥의 길을 열어나가시는 백두령장의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선군승리의 서사시가 세대와 세대를 이어 끊임없이 수놓아지고있는것이다.

령도자의 혁명방식이자 인민들의 투쟁기풍이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이 《마식령속도》를 창조하며 립체전, 화선선전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으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문수물놀이장, 은하과학자거리, 옥류아동병원을 비롯한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훌륭히 일떠세운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같은 공격정신을 구현한것이다. 당에 충직한 군대와 인민을 믿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수호를 위한 중대한 결단도 내리고 강성부흥의 찬란한 설계도도 펼쳐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에서 우리는 언제나 인민을 믿고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조선혁명을 줄기차게 전진시켜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영상을 우러르고있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승승장구하는 길은 위대한 수령님식, 장군님식대로 투쟁하는 길밖에 다른 길은 없다. 사람의 피에 다른 형의 피가 섞이면 생명이 위험한것처럼 조선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식, 장군님식으로 전진하고 발전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방식을 굳건히 고수하고 빛내여나가시는 백두의 선군령장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가 있기에 우리 인민은 영원히 김일성, 김정일민족으로 위용떨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은정을 그대로 부어주시는 친어버이이시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품속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려온 복받은 인민이다.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존재로 여기고 인민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와야 한다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인민사랑에 의하여 이 땅우에 인류가 수수천년 리상으로만 그려보던 인민의 락원이 일떠서게 되였다. 우리 당과 국가의 시책들과 로동당시대의 건축물들, 우리가 누리는 사회주의생활을 비롯하여 곳곳에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애민헌신의 세계가 뜨겁게 깃들어있는 나라가 우리 조국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천만군민을 한품에 안으시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은정을 부어주신다. 적들의 총구가 도사리고있는 선군의 산악 오성산에 나가시여 병사들과 함께 기념사진도 찍으시고 그들의 가슴마다에 무비의 용맹을 안겨주시는분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이시다. 병사들과 인민들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은 새집들이한 평범한 로동자의 가정을 찾으시여 사랑의 축배잔을 부어주신데도 어리여있고 조선소년단 제7차대회에 참석하시여 온 나라 소년단원들의 앞날을 축복해주신 전설같은 이야기에도 깃들어있으며 섬방어대의 군인가족들과 어린이들에게 안겨주신 하늘같은 은정에도 새겨져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새로 건설된 기념비적창조물의 준공테프도 그것을 리용하게 될 청소년학생, 근로자들이 끊는 현실이 펼쳐지고있다. 언제나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마음을 안고 군인들의 초소를 찾아주시고 절세위인들의 인민사랑을 현실로 꽃피워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가 있기에 위대한 태양의 력사가 끊임없이 흐르고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세계는 우리 당의 정치에 의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미치고있다. 우리 당의 광폭정치, 인덕정치아래 일시적이나마 조국을 떠나갔던 사람들도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기고 나라앞에 죄를 지었던 사람들도 혁명대오에 다시 들어서는 감동적인 화폭이 펼쳐지고있다. 병든 자식, 상처입은 자식을 탓하지 않고 더 마음을 쓰며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으켜세워 내세워주는 위대한 태양의 품, 이것이 어머니 우리 당의 품이다.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과 우리 인민은 혈연의 정으로 굳게 맺어진 끊을래야 끊을수 없는 혼연일체를 이루고있다. 인민군부대들에 가면 조국의 초소를 맡긴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생명처럼 간직한 병사들이 있고 대고조전투장들을 찾으면 최첨단돌파전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라는 그이의 말씀을 실천으로 받들어나가는 과학자들과 로동계급이 있으며 협동벌에 가면 자기 사는 고장을 사회주의리상촌으로 꾸려야 한다는 원수님의 간곡한 당부를 신념으로 간직한 농업근로자들이 있다. 그 어느 단위를 찾아도, 그 누구를 만나보아도 우리 인민의 생각은 오직 하나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결사관철하려는것이며 그들이 바라는것은 원수님의 안녕뿐이다. 태양을 따르는 무성한 해바라기처럼 령도자와 사상도 신념도 뜻과 리상도 하나가 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힘을 당할자는 세상에 없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굳건히 계승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또 한분의 위대한 태양이시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에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숨결과 체취를 그대로 느끼고있으며 원수님의 고매한 인덕에서 끝없는 매혹과 흠모심을 간직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을 우러르면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받들던 그 자세로 억세게 싸워나가려는 기백이 샘솟고 원수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을 들으면 천만산악도 단숨에 뚫고나갈 불같은 열정이 용솟음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위대한 태양의 위업을 굳건히 계승해나가자, 이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이고 의지이다.

모두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모신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박 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꽁고공화국 정부대표단을 만났다

【평양 10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1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의례방문하여온 가꼬쏘 쟝 클로드 문화 및 예술상을 단장으로 하는 꽁고공화국 정부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김성민 만수대창작사 부사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석상에서 가꼬쏘 쟝 클로드 문화 및 예술상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데니 싸쑤 느게쏘 꽁고공화국 대통령이 보내는 인사를 전하여드릴것을 김영남동지에게 부탁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꽁고를 비롯한 아프리카나라들에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확대발전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세기를 이어 빛나는 고결한 애국의 한생

오늘은 리보익녀사께서 서거하신지 54돐이 되는 날이다.

돌이켜보면 리보익녀사의 생애는 강의하고 억세인 애국정신으로 빛나는 고결한 한생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할머니가 품고있던 소박하나 간절한 꿈은 나라의 독립이였습니다. 조선의 독립을 기다리며 그 독립을 위해 싸우는 자손들을 돌보아주고 그들의 뒤바라지를 성실하게 해주는것이 할머니의 일이고 락이였습니다.》

슬하에 많은 자손들을 두신 녀사께서는 한가정의 운명보다도 도탄에 빠진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위해 아드님과 손자분들모두를 혁명의 길에 내세우시였으며 그후에도 고향집사립문으로 쓸어드는 력사의 모진 비바람을 한몸으로 막아내며 온갖 고초를 다 이겨내시였다.

주체15(1926)년 여름, 김형직선생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 무송으로 오신 리보익녀사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 이제는 아버지가 메고있던 짐을 네가 메야 한다고, 나나 어머니에게 효도를 못해도 좋으니 조선을 독립하는 일에 몸과 마음을 다 바치라고 하시며 수령님의 혁명활동을 적극 고무해주시였다.

누구나 할수 있는 당부가 아니였다.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시고 대를 이어서라도 강도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기어이 되찾아야 한다는 숭고한 정신세계를 지니신 리보익녀사이시였기에 손자분을 혁명의 길로 떠미신것이였다.

이것이 얼마나 잊혀지지 않으시였으면 후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때 할머니가 나에게 나라의 독립과 같은 중대사를 부탁한것은 나에 대한 믿음의 표시였다고, 자신께서는 할머니의 그 말에서 큰 힘을 얻었다고 뜨겁게 회고하시였겠는가.

그 어떤 강권이나 불의앞에서도 휘여들지 않는 강의한 신념과 절개, 그것은 리보익녀사의 고결한 천품이였다.

우리의 눈앞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리보익녀사를 추억하신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글줄들이 어려온다.

우리 할머니의 특징은 한마디로 강의한 늙은이라고 표현할수 있을것입니다. 할머니는 그 나이의 녀성들치고 보기 드문 강자였습니다. 가난하고 불행하고 선량한 사람들에게는 그지없이 상냥하고 부드럽지만 사람같지 않은자들에게는 추상같은것이 우리 할머니입니다. …

일제가 강요하는 《귀순공작》놀음에 견결히 맞서싸우신 리보익녀사의 강의한 신념과 굳은 절개는 오늘도 만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원쑤들의 강요에 의하여 서간도의 산악지방으로 1년가까이 돌아다니시면서도 리보익녀사께서는 오히려 일제놈들과 혁명의 배신자들을 엄하게 다불리시였다.

적들은 총대를 휘두르며 손자의 이름을 부르라고 강요하였다. 그때마다 《나는 그런 미친 소리는 할줄 모른다. 네놈들이 나를 죽이고 무사할줄 아느냐. 우리 손자의 총알을 받고싶거든 어디 네놈들 하고싶은대로 해봐라!》라고 하시는 리보익녀사의 불호령소리에 매번 원쑤들은 기가 질리군 하였다.

어이하여 녀사께서는 이렇듯 순간도 두려움이 없으시였던가.

비록 온갖 고생을 다 겪는다 해도 혁명일가의 존엄과 기개는 목숨보다 더 귀중하다는것을 심장으로 간직하신분이시였기때문이다.

리보익녀사께서는 그후 일제의 강요로 다시금 만주땅을 밟으시였을 때에도 유격대의 승전소식을 들으시면 곁에 누가 있건말건 《내 손자가 장하다! 어서 왜놈들을 다 잡아치우고 우리 나라 땅에서 왜놈들의 씨를 말려라!》라고 기세를 올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할머님의 강직한 성품을 너무도 잘 알고계시였기에 일제가 할머니까지 만주의 설한풍속에 끌어내였다는 소식을 들으시였을 때에도 사사로운 인정에 묻히신것이 아니라 천백배의 복수심을 굳히시며 원쑤격멸의 총성을 더 높이 울리시였다.

리보익녀사께서 총 한자루 없는 늙으신 몸으로 적들을 가슴후련히 다불릴수 있은것은 신념과 의지가 강하고 미래에 대한 신심이 확고하시였기때문이다.

일제의 폭압이 절정에 달하였던 시기에 늙으신 몸으로 혁명가의 할머니로서의 절개와 지조를 굳세게 지킨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조선혁명이 반드시 승리할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안고계시였기에 그 어떤 박해와 고초, 모진 시련과 난관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적들과 그처럼 당당히 맞설수 있었으며 마침내 조국해방의 날을 맞으실수 있었다.

리보익녀사는 생의 전기간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한평생을 기다리며 사시였다.

해방전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아오실 독립의 날을 기다리시였고 해방후에는 수령님께서 고향으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였으며 그후에는 만민이 잘사는 날과 조국이 통일되는 날을 기다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당과 국가건설이 끝나면 할아버님과 할머님을 자신의 곁에 모시려고 하시였다. 그러나 그분들은 호강하는것을 바라지 않으시였고 수수한 평백성으로 사시면서 생의 말년까지 농사일을 계속하시였다.

《일거리가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니라.》, 이것이 리보익녀사의 소박한 철학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살림에 보탬을 주시려 무엇인가 해드리려고 마음쓰시는것 같으면 녀사께서는 이 할머니걱정은 안해도 되니 백성들걱정이나 하라고 하시며 늘 사양하군 하시였다.

그래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생토록 효도를 할수 없었던 그 나날들을 가슴아프게 추억하시면서 자신께서는 할머니에게 두툼한 솜옷 한벌 지어드리지 못하였다고, 자신께서는 나라의 모든 마을들에 기와집을 지어주면서도 할머니한테는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새 집을 지어드리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신것이였다.

조국의 부강번영을 그토록 바라고바라신 리보익녀사의 숭고한 념원은 또 한분의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나아가는 우리 천만군민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기어이 실현되고야말것이다.

전 광 남

우리 당이 인민들에게 안겨준 사랑의 선물—문수물놀이장

우리 인민들에게 세계적인 물놀이장을 안겨주시려는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뜻이였다.

인민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뜻깊은 10월에 세계적수준의 물놀이장이 문수지구에 일떠섰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만난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야외물놀이장과 실내물놀이장, 실내체육관, 문수기능회복원으로 이루어져있는 문수물놀이장의 건평은 10만㎡가 넘는다.

지구상에 물놀이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많아도 이런 방대한 부지에 건설된 물놀이장은 오직 사회주의 우리 나라밖에 없다.

실내물놀이장의 홀에는 어버이장군님의 천연색석고립상이 정중히 모셔져있다.

어버이장군님의 천연색석고립상을 우러르느라면 한평생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절세의 위인의 한평생이 어려와 눈굽이 젖어드는것을 금할수가 없다.

해빛이 눈부시게 비쳐드는 실내물놀이장은 2층으로 되여있다.

세상에 없는 락원, 행복의 선경을 자랑한다

실내물놀이장의 1층에는 어머니 및 어린이수조, 아동수조를 비롯한 각종 물놀이수조들과 한증방, 샤와장 등이 있고 2층에는 급양 및 편의봉사시설들이 최상의 수준에서 꾸려져있다.

자연채광으로 하여 맑고 푸른 하늘이 그대로 지붕이 된듯 한 실내물놀이장은 야외와 별다름이 없는 느낌을 주고있다.

흰 지지기둥들을 감돌며 뻗어올라간 물미끄럼대들은 얼마나 훌륭한가.

하지만 겉만 보고서는 물미끄럼대의 훌륭함을 다 알수 없다.

제일 높은 물미끄럼대를 타고 수조까지 미끄러져내리는데 20초가량 걸리는데 그때의 쾌감이란 이루 형언할수 없다고 리용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실내물놀이장에 울리는 음악은 흥취를 한껏 돋구어준다.

마치도 해수욕을 하는것만 같은 느낌을 주는 파도수조도 훌륭한 물놀이장소이다.

쉬임없이 솟구치는 파도, 그것은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서 고패치는 다함없는 고마움의 분출인양싶다.

실내물놀이장에는 각종 수영기재들과 체육기재들을 판매하는 상점, 샤와장과 함께 여러 한증방들도 있다.

한증방을 리용한 뒤에 휴식을 할수 있게 되여있는 휴식터도 특색있게 설비되여있다.

정말이지 하나를 주면 열백을 더 주고싶어하는 다심한 어머니의 사랑과 정에도 비길수 없는것이 바로 인민들에 대한 우리 당의 사랑이며 인민들이 목메여 받아안는 하늘같은 은덕이다.

어찌 휴식터뿐이랴.

실내체육관의 체육기재들과 곳곳에 설치되여있는 가구들에도, 탈의실의 거울과 건발기 하나에도 어머니 우리 당의 다심한 사랑이 깃들어있다.

모든 공간을 효과적으로 리용한 야외물놀이장도 장관이다.

정말이지 안팎으로 인민사랑이 꽉 차있는 문수물놀이장이다.

야외물놀이장에서 첫눈에 안겨오는것은 하늘높이 치솟아오른 급강하물미끄럼대들이다.

야외물놀이장에는 이밖에도 강과 바다가 엇갈리는듯 한감이 든다는 물미끄럼대, 쾌속정의 선창에서 날바다를 헤쳐가는 쾌감을 맛볼수 있다는 물미끄럼대, 끝과 갈래를 알수 없는 미궁으로 빠져들어가는듯 한 아찔한감을 주는 물미끄럼대를 비롯한 각이한 모양과 기능을 가진 많은 물미끄럼대들이 있다.

크기가 서로 다른 10여개에 달하는 수조들도 아주 특색있다.

서해의 바다물이 출렁이는 바다물수조도, 맑은 물이 굽이쳐 흐르는 수백m길이의 수조도, 동화의 세계를 방불케 하는 아동물공원도 흠잡을데가 없다.

야외물놀이장에는 또한 인공폭포가 있는가 하면 묘향산과 금강산의 기암절벽들을 그대로 형상한 인공바위산도 있다.

바위산밑으로는 동굴도 나있다. 동굴안에 있는 여러 동물조각들이 어찌나 신통한지 마치 살아있는것만 같다.

이밖에도 모래터배구장, 조약대 등이 있으며 표식판으로부터 걸음길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이 물놀이장의 구색에 맞으면서도 인민들의 편리를 최대로 보장하게 되여있다.

문수물놀이장의 한 일군은 이렇게 말하였다.

《문수물놀이장의 설비들과 건물들은 물론 봉사원들의 복장과 마크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겁고 다심하신 인민사랑이 깃들어있습니다.》

며칠전 완공단계에 이른 문수물놀이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어버이장군님의 천연색석고립상을 오래도록 보시며 하신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울려준다.

우리 인민들에게 종합적인 물놀이장을 꾸려주시려고 마음쓰신 장군님께서 훌륭히 완공된 문수물놀이장을 보시였으면 얼마나 기뻐하시였겠는가!

인민의 행복, 그것이 우리 장군님의 소원이였고 장군님의 소원은 우리 원수님의 리상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친히 문수물놀이장건설을 발기하시고 자신께서 직접 설계가, 건축가가 되시여 이토록 훌륭한 물놀이장을 건설하도록 하시여 인민들에게 안겨주신것이다.

세계적인 문수물놀이장!

그것은 인민모두가 어머니라 부르며 따르는 우리 당이 과연 어떤 당이며 조선로동당이 인민들에게 안겨주려는 사회주의문명과 만복이 어떤것인가를 세상에 보여주고있다.

글 본사기자 리경일
사진 본사기자 리진명

으뜸가는 다기능화

문수물놀이장은 다기능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현대적인 물놀이장이다.

물놀이시설만 놓고보아도 상상을 초월할만큼 다방면적이고 종합적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21세기의 새로운 문명개화기를 활짝 열어놓아야 하겠습니다.》

거대한 면적에 펼쳐진 문수물놀이장에는 수많은 물놀이시설과 수조가 있다.

물놀이시설들은 높이가 근 20m나 되는 아찔한것과 어린이들이 리용할수 있는 단순한것, 물매가 가파로운것과 완만한것, 주로가 긴것과 짧은것, 고무배를 리용하여 내리는것과 맨몸으로 내리는것을 비롯하여 각양각태이다.

수조들도 수영수조, 파도수조, 초음파수조 등으로 다양하게 되여있어 그 어떤 형식의 물놀이도 다 할수 있다.

야외와 실내의 그러한 물놀이시설들을 한번씩 다 리용하고 매 수조에 다 들어가보자고 해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물놀이시설도 다양하고 종합적이지만 여러가지 종목의 체육을 할수 있는 운동시설들도 그쯘히 갖추어져있다.

문수물놀이장에는 실내체육관이 따로 있는데 이곳에는 배구장, 롱구장, 바드민톤장 등이 꾸려져있고 근육단련에 좋은 탄력망과 벼랑타기시설도 있다.

또한 운동기재실들도 있는데 여기에는 다리운동, 달리기운동, 등운동, 허리운동, 한손운동, 두손운동, 아령운동, 계단오르기운동, 선자세운동, 당김운동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운동에 필요한 기재들이 갖추어져있다.

원래는 실내체육관이 설계에 예견되여있지 않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실내물놀이장곁에 실내체육관도 건설하도록 하시여 오늘처럼 떳들어진 실내체육관이 일떠서게 되였다.

야외에도 롱구장, 바드민톤장, 로라스케트장 등 각종 체육장이 있다.

수영복차림으로 다양한 물놀이는 물론 갖가지 체육종목을 즐길수 있는 요란하고 희한하며 다기능화된 물놀이장을 돌아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기능에 비해 문수물놀이장이라는 이름이 너무 소박하다고 말한다.

인민들에게 안겨줄 세계일류급의 물놀이장을 구상하시고 다기능화된 특색있는 물놀이장으로 완공하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덕을 문수물놀이장은 길이 전할것이다.

본사기자 허명숙

즐거움을 더해주는 봉사시설들

인민들이 맛좋고 특색있는 료리들과 각종 청량음료를 들며 즐겁게 휴식하도록 문수물놀이장에는 급양봉사시설들이 그쯘히 갖추어져있다.

실내물놀이장의 1층과 2층에는 창전해맞이식당에서 운영하는 해맞이청량음료점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여러가지 간이음식들과 각종 청량음료들을 봉사하여 손님들을 기쁘게 해주고있다.

여러가지 감미로운 음식들도 내고있어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다.

아늑하게 꾸려진 해맞이커피점도 있어 이곳에서 여러가지 커피들도 마실수 있다.

커피맛이 참 좋아 아마 이곳에서 밤을 보내고 해뜰무렵까지 앉아있을지도 모른다.

해당화관에서 운영하는 해당화맥주집과 해당화빵집도 있는데 이곳들에서 봉사하는 시원한 맥주와 수십가지의 빵은 손님들이 물놀이에 한껏 달아오른 몸들을 식히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기에 족하다.

기념품상점도 있고 미안실, 안마실, 리발실, 미용실, 자외선치료실들도 있다. 식탁모양의 야외청량음료점들에서는 물놀이의 여가에 간단한 음식들과 청량음료들을 봉사받을수 있다.

종일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칠줄 모르는 문수물놀이장,

즐거움을 더해주는 문수물놀이장의 봉사시설들을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고찾을것이다.

본사기자

이모저모가 새로운 한증방들

문수물놀이장의 실내물놀이장에는 독특한 치료효과를 내는 9개의 한증방이 있는데 하나같이 이모저모가 다 새롭고 처음 보는 으뜸가는 한증방들이다.

소금한증방은 벽면이 2~3㎏의 소금돌들로 채워져있다.

소금돌들은 수십종의 미량원소가 포함되여있는 수정소금돌이다. 이 소금돌들은 한증방의 온도가 높아지면 겉면에서 먼지형태의 소금립자가 떠올라 사람의 몸에 붙게 된다. 호흡되기도 한다.

이것은 염증을 뽑아내는 치료효과를 내며 신경계통의 병치료와 피로회복 등에 매우 효과있다고 한다. 문수물놀이장에는 그런 소금한증방이 2개나 된다.

2개의 황토한증방에는 일정한 온도에서 먼적외선과 극초단파를 발생하는 황토를 베아링알모양으로 빚어서 구워내여 바닥과 벽면에 채웠다. 황토한증방은 비만증치료와 염증제거 등에 효과적이라고 한다.

천정과 벽면이 참나무숯으로 되여있는 참숯한증방도 있고 송진내가 짙은 산림욕방도 있다.

그런가하면 마노벽돌로 벽면을 이룬 마노한증방도 있다. 석영의 한 종류인 마노는 일정한 온도에서 극초단파를 방출한다. 이외에도 얼음방, 신선한 공기를 호흡할수 있는 산소방도 있어 문수물놀이장은 건강과 치료효과에서 특색있는 한증방의 세계라고도 할수 있다.

이름도 처음 듣고 보기에도 처음인 한증방들,

인민들을 위해 우리 당이 마련한 세상에 보기 드문 인민사랑의 한증방들이다.

본사기자 로주봉

산중에 온듯, 공원에 온듯

문수물놀이장에 들어서면 산중에 온것 같기도 하고 공원안에 있는것 같기도 하다. 물놀이시설들과 조화를 이루며 펼쳐진 산과 바위들, 조각들과 폭포들, 잔디밭들과 휴식터들, 불장식나무들과 불장식동식물조각 등은 자연미와 황홀함을 자랑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하여주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물놀이장을 병풍처럼 둘러막은 인공산에는 수종이 좋은 나무들이 아지를 펼치였고 여기저기에 바위들도 박혀있어 그야말로 산중을 련상시킨다. 기기묘묘한 자태로 솟아올라 절벽을 이룬 바위우에 올라 물놀이장을 내려다보면 파도치는 바다를 보는듯 한감을 준다.

바위산밑을 가로지른 굴속에 들어서면 아래서는 물이 흐르고 머리우에는 갖가지 모양의 돌순들이 이채로운 풍경을 펼치고있다.

그런가하면 여러가지 조각들이 동굴속의 정서를 한껏 더해준다. 바위산절벽에는 모자이크로 형상한 폭포수가 절경을 이루었고 하늘을 날아예던 새가 문수물놀이장의 희한한 광경에 내려앉아 돌로 굳어진듯 한 모습도 볼수 있다.

버섯지붕을 건듯 인 휴식터에서 물놀이장을 바라보는 감흥 또한 류다르고 물갈기를 날리며 쏟아지는 폭포의 광경은 얼마나 멋진가.

물놀이장에서 더욱 시선을 끄는것은 아동물공원이다. 갖가지 분수에서 쏟아져나오는 물줄기가 서로 교차되며 아름다운 무지개를 펼치고있으며 물총을 내쏘는 물고기들은 그 모양이 실물을 보는것처럼 생동하다. 커다란 물통에서 쏟아지는 물벼락에 흠칫 놀라 뒤척이는 상어며 아동물공원의 놀이기재우에 올라 쉬임없이 재잘거리는 앵무새를 형상한 조각도 있다. 아동물공원의 자태가 너무도 황홀하여 입을 하 벌린 개구리와 행복에 넘쳐있는 아이들을 건뜻 들어올리고싶어 긴 코를 늘어뜨린 코끼리를 형상한 물미끄럼대들은 그네와 더불어 동심에 잘 어울리고있다.

참으로 문수물놀이장은 공원화, 식물원화가 훌륭히 실현된 최상급의 문화정서생활기지이다.

본사기자 조경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우리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그들에게 끝없는 행복을 가져다주는 어머니당입니다.》

멀리서 보면 울긋불긋한 꽃송이들로 장식된 커다란 꽃바구니 같다.

가까이 가서 보면 연방 감탄이 터져나오게 하는 일대 황홀경이다.

형태도 각이하고 색갈도 다양한 아름다운 물미끄럼대들,

올리뻗고 내리뻗고 앞으로 치달은 활동적인 그 모양,

마치도 칠색무지개들이 공중에 이리저리 엇갈려 비낀듯 하고 곱고고운 비단필들이 하늘가에서 너울너울 나붓기는것 같다.

물놀이장정문결에 있는 종합안내도를 보면 그 많은 물미끄럼대들의 이름을 알수 있다.

닫김식물미끄럼대, 열림식물미끄럼대, 관성렬차식물미끄럼대…

물놀이장을 찾는 사람들마다 종합안내도앞에서 붐비며 물미끄럼대들의 이름을 외우느라 여념이 없다.

문수물놀이장에는 물놀이수조만도 수십개에 달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문수물놀이장을 물의 궁전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앞에 《아름다운》이라는 말을 꼭 붙여야 할것이다. 왜냐면 문수물놀이장이야말로 안팎으로 아름다움의 절정을 이루기때문이다.

실례로 실내물놀이장으로 들어서는 사람들은 누구나 무춤 걸음을 멈추게 된다.

한 청년의 말처럼 혹시 잘못 들어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에서이다.

물놀이장이라기보다 황홀한 무대를 방불케 하는 아름답고 희한한 전경이 눈앞에 펼쳐지기때문이다.

뽈트라스형식으로 처리한 특색있는 지붕,

천정을 아름답게 장식한 여러가지 모양의 풍선들과 완구들,

물놀이장 여기저기에서 푸른 잎 설레이는 희귀한 식물들과 꽃나무들,

…

거기에 실내물놀이장을 가로세로 썰며 눈을 부시게 하는 오색령롱한 불장식들로 하여 그야말로 무대우에 오른 기분에 싸이게 된다.

곳곳에 맑은 물 출렁이는 수조들과 물미끄럼대들이 있기에 여기가 물놀이장임을 짐작할수 있다.

그처럼 아름다운 물의 궁전에서 인민들은 마음껏 물의 세계를 즐길수 있다.

한 안내원이 물놀이를 하는 재미도 좋지만 구경하는 재미 또한 이를데 없다고 말하였는데 일리가 있는 말이였다.

1층의 물놀이장이 황홀경을 펼친 무대라면 그 모든것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2층은 관람석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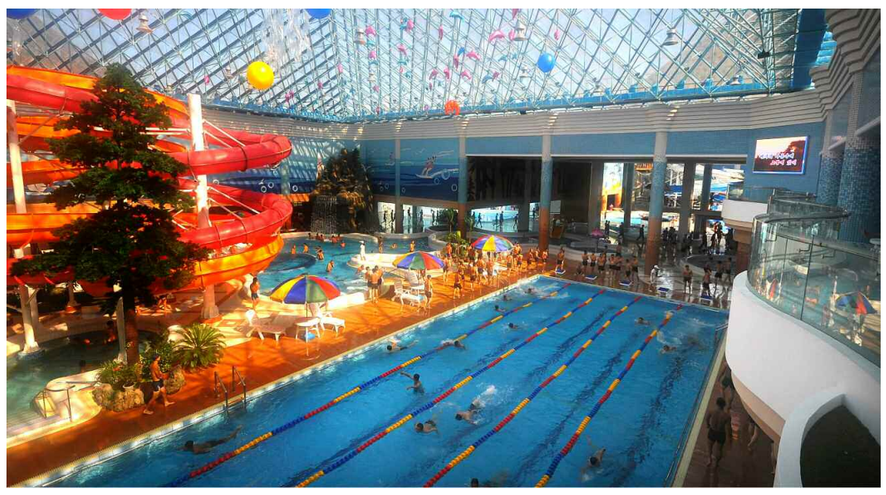
실내물놀이장의 벽에는 커다란 시계가 걸려있다.

인민들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겁고 다심한 사랑이 깃들어있는 시계이다.

그 시계는 인민들이 맞고보내는 행복의 나날들을 끝없이 새기리라.

글 본사기자 방성화
사진 본사기자 리충성

아름다운 물의 궁전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과시하며 솟아난 류경구강병원

은혜로운 사랑속에 인민이 산다

경치아름다운 수도 평양의 대동강기슭에 또 하나의 인민사랑의 기념비가 솟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친히 이름지어주신 류경구강병원이 개원하였다.

몸소 구강병원건설을 발기하시고 설계로부터 건설 전과정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또 하나의 사랑의 선물을 인민들에게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은정을 그 무엇으로 다 전할수 있으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우리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그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투쟁하는 당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다는 알지 못할것이다. 현대적인 구강병원건설에 바쳐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사랑의 세계와 헌신의 자욱자욱을.

지난 7월 중순 비내리는 날, 그날은 건설자들이 목이 쩍 메여 만세도 목청껏 부르지 못한 격정의 날로 새겨져있다.

(이런 궂은날에 우리 원수님께서 오시다니!)

몸소 설계형성안도 보아주시고 걸음걸음 이끌어주시는 그이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착공후 불과 3개월 남짓한 사이에 골조공사를 끝내고 지붕씌우기에 들어간 건설자들이였다.

꿈에도 그리던 경애하는 원수님을 만나뵙는 크나큰 기쁨에 앞서 비내리는 너무도 험한 건설장에 그이를 모시게 된 죄송스러움이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가슴을 얼마나 허비였던가.

내리는 비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옷자락이 자꾸만 젖어들었다. 자신의 신발이며 옷자락이 젖어드는것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며 그이께서는 환하게 웃고계시였다. 교통조건이 편리하고 환경도 좋은 현대적인 구강병원을 리용할 인민들의 모습을 그려보시는듯.

그래서 더욱더 목이 메고 가슴저려오는 일군들과 건설자들이였다.

그날에 응어리진 가슴속아픔이 아직 풀리기도 전인데, 그날의 죄송스러움이 아직 가셔지지 않았는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9월 하순 또다시 건설장을 찾아주시였다.

먼지가 날리는 험한 작업장에 서슴없이 들어서시여 건설정형을 하나하나 알아보시면서 세심히 지도해주신 그날에는 또 얼마나 가슴뜨거운 사랑의 전설이 새겨졌던가.

중앙홀과 관통홀을 돌아보시면서는 실내조명을 밝고 온화한 감을 줄수 있게 설계한것이 마음에 든다고 치하하시며 가구들도 손색없이 만들어주자고 당부하시고 2층의 여러 치료실에 들리시여서는 치료실들은 물론 복도와 홀들도 좋은 마감자재들로 손색없이 꾸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시기를 그 몇번…

어린이놀이장을 보시면서는 어린이들의 동심에 맞게 잘 꾸려주자고 또 3층에 오르시여서는 의사, 간호원들이 리용하게 될 방들을 잘 꾸려주자고 뜨거운 사랑을 거듭거듭 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사랑하는 인민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도 따다 주고싶으신듯 건설을 마무리하고 병원운영을 잘하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문제들도 세심히 가르쳐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심장으로 웨쳤다.

(경애하는 원수님, 제기일에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하겠습니다. 인민사랑의 결정체로 훌륭하게 꾸리겠습니다.)

비약의 폭풍이 건설장에 몰아쳤다. 강력한 건설부대라는 절세의 위인들의 크나큰 믿음의 평가를 받은 건설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심장에 새기고 결사관철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보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마무리공사도 성과적으로 끝냈다.

당창건기념일을 앞두고 삼가 완공의 보고를 드리는 건설자들의 가슴가슴에는 병원건설에 바쳐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사랑과 헌신이 다시금 뜨겁게 새겨졌다. 몸소 병원터전을 잡아주시고 비내리는 궂은날에도 찾아오신 그 헌신, 구강종합치료기에 공급되는 물의 온도와 려과상태까지 헤아려주신 세심한 사랑…

바로 이런 전설같은 사랑에 떠받들려 문수지구에는 은혜로운 사랑의 집—류경구강병원이 일떠서게 되였다.

그렇다. 인민사랑의 기념비로 우뚝 솟아오른 류경구강병원은 길이길이 전해갈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걷고걸으신 궂은 길우에 인민의 만복이 꽃펴났다고.

글 본사기자 김향란
사진 본사기자 한광명

세심한 손길, 뜨거운 은정

상식소개판이 전하는 사연

류경구강병원 치료실들의 기다리는 곳마다에는 구강상식소개판들이 있다. 이 하나하나의 소개판들에도 인민을 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다심한 사랑이 뜨겁게 어려있다.

구강병원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던 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치료실이며 의사실, 간호원실에 이르기까지 매 방들을 일일이 돌아보시면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에게 구강상식에 대하여서도 많이 말씀하시였다.

사실 그때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의도를 다는 알수 없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상식소개판을 걸어주면 인민들이 좋아할것이라고 하시며 그 위치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실 때에야 일군들은 무릎을 쳤다.

건설이 한창인 때에 벌써 병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구강상식을 넓혀주기 위해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웅심깊은 사랑에 일군들은 눈굽을 적시였다.

그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수많은 상식자료들을 소개한 상식소개판들이 생겨나게 되였다.

병원안의 상점

구강병원건설장을 찾으신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병원에 꾸려진 상점에도 들리시였다.

훌륭히 꾸려진 상점을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상품진렬대앞에서 걸음을 멈추시고 형성도안들을 펼치시였다.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된 형성도안들을 한장한장 펼쳐가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에게 상품진렬대도 이 도안대로 만들며 구강위생에 도움을 주는 매 상품들의 진렬도 꼭 그대로 하라고 이르시였다.

수행성원들은 또다시 가슴이 찌릿해났다.

구강병원형성도안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실 때에는 상점도 꾸리도록 하여주시고 비오는 궂은날 건설장을 찾으시였을 때에는 상점위치도 물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완공을 앞둔 이날에는 여기에 들리시여 인민들에게 훌륭히 꾸려진 상점을 안겨주시려 마음을 쓰고 또 쓰시는 원수님이시였다.

하나를 주시면 열, 백을 더 주고싶어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은정속에 류경구강병원에는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는 상점도 훌륭히 꾸려지게 되였다.

특별대우

지난 10월 9일 개원을 앞둔 류경구강병원에 경사가 났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완공의 보고를 삼가 올린 일군들과 건설자들에게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던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류경구강병원을 6개월 남짓한 기간에 훌륭히 일떠세운 건설자들의 자랑찬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여 그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보내주시는것과 함께 은정어린 조치도 취해주시여 건설자들이 특별대우를 받도록 하시였다.

꿈엔들 생각이나 했으랴.

수저를 차마 들지 못하는 건설자들의 두볼로는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류경구강병원의 설계로부터 시작하여 건설전과정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신 경애하는 원수님,

궂은날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험한 건설장에 찾아오시여 비를 맞으시며 건설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날의 모습이 건설자들의 가슴마다에 깊이깊이 새겨져있다.

특별대우를 받으셔야 할분은 바로 우리 원수님이시였다. 그런데 영광의 자리에 건설자들을 앉혀주시고 특별대우까지 해주시였으니 그들의 격정이 왜 하늘에 닿지 않으랴.

본사기자 장철범

보는것마다 황홀하고 듣는것마다 새로왔다.

병원이라기보다 현대적인 문화정서기지를 방불케 하였다. 병원에서 노래라니 안될 말이지만 흥겨운 노래소리가 절로 흘러나왔다. 이런 곳에서는 아픔도 절로 멎지 않을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속생각을 터놓는 나에게 기술부원장 서영창동무가 말하였다.

《치료에서도 마음이 절반이라는데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옛말에 이발이 든든한것을 오복의 하나라고 하였지만 그것을 어찌 타고난 복이라고만 하겠습니까. 로동당시대에 누구나 누리는 만복의 하나라고 해야 옳을것입니다.》

웃으며 하는 그의 이야기였다. 그러나 나의 가슴은 불덩이를 안은듯 뜨거워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만난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따라 변함없이 한길을 걸어온 우리 인민이 선군의 덕으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유족한 생활을 누리게 하려는 우리 당의 결심은 확고합니다.》

오복이란 먼 옛날 근심걱정없이 건강하고 유족하게 살고싶은 마음에서 우리 인민들이 꼽아본 인생의 소원과 기쁨의 대명사이다. 그중에서도 우리 인민은 무병장수의 기쁨을 첫손가락에 꼽았다.

건강이 재산이라고 건강해야 인생의 락도 맛볼것이 아니겠는가.

수필
오복에 대한 생각

하지만 나라없던 그 세월 건강하고싶은 마음은 한갖 꿈에 지나지 않았다.

바로 그 꿈을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현실로 꽃피워주시였다.

돈이 없어 병이 나도 병원문앞에 가보지도 못하던 우리 인민에게 무상치료제의 혜택을 안겨주시고 60청춘을 노래하도록 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

나의 머리속에는 문득 취재길에서 만났던 의학과학원의 한 일군이 들려주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다른 나라에 출장을 갔다가 급병으로 어느 한 병원에 들려 진찰을 받고나서 놀랐다던 이야기였다. 태여나서부터 돈내고 치료받는 법을 모르는 그가 우리 나라에서처럼 생각하였다가 약차한 진단비를 요구하는 그 나라 의사들앞에서 한동안 말을 못했다는 이야기는 결코 웃으며 넘길 말이 아니였다. 복속에서 복을 모르는 우리 인민이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이야기였다.

진정 사회주의의학에서 기본은 예방의학이라고 하시며 세상에 없는 의사호담당제를 실시하도록 하시고 의사들이 환자들을 찾아가는 인간사랑의 화원을 꽃피워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랑을 천만년세월이 흐른들 잊을수 있으랴.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꼭같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은정속에 이 땅에 또 하나의 사랑의 전설을 새기며 솟아난 류경구강병원이였다.

훌륭히 꾸려진 각종 치료실들을 돌아보는 우리에게 병원건설에 참가하였던 한 일군이 말하였다.

《세월이 흐르면 다 알겠습니까? 먼지가 뽀얗게 날리는 작업장을 찾으시여 병원의 구석구석을 다 돌아보시면서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치료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그리도 마음쓰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사랑을 말입니다.》

그날의 격정이 되살아나는듯 일군의 눈굽이 젖어들었다. 우리의 가슴속에도 뜨거운 격정이 솟구쳐올랐다.

최신식설비를 갖춘 이 병원에서 무상치료의 혜택을 마음껏 향유할 우리 인민의 모습을 그려보니 옛적부터 일러온 오복에 대한 의미가 더욱더 새로와졌다.

든든한 이발을 오복의 하나로, 타고난 복으로만 여겨온 우리 인민이였다.

하지만 오늘은 달라졌다. 우리 당이 안겨준 이런 훌륭한 병원이 있어 우리 인민모두가 그 복의 주인공이 된것이 아닌가.

그렇다. 사회주의만복속에 오복도 있다.

본사기자 림현숙

최상급의 의료봉사기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사회주의문화의 창조자, 향유자로 되게 하며 문화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건강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려는 우리 인민들의 념원이 현실로 꽃피게 하여야 합니다.》

안을 보아도, 밖을 보아도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히 꾸려졌다. 건축의 조형화, 예술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고 예방치료를 위한 물질기술적조건도 충분히 갖추어져있다. 최신식의료설비들은 물론이고 위생문화적이며 정서적인 치료환경이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낸다.

세계적으로 좋다는 구강의료설비는 다 있다. 수십대의 현대적인 구강종합치료기며 다목적구강촬영기, 보철설비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우리 인민, 당을 따라 변함없이 한길을 걸어온 우리 인민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보내주신 은정어린 치료설비들이다.

구강렌트겐과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 최신식다목적구강촬영기 한대값이 얼마인가를 안다면 사람들은 아마 놀라움을 금치 못할것입니다.

사람을 세상에서 제일로 귀중히 여기는 우리의 사회주의보건제도가 아니고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치료실들에는 환자치료에 자그마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구강종합치료기사이마다 가림막도 설치되여있고 각종 치료도구들이 그쯘히 갖추어져있다.

훌륭히 꾸려진 구강외과와 구강내과, 구강렌트겐과, 보철과도 그렇지만 어린이구강과에 들어서면 저도 모르게 탄성이 터져나온다. 동심에 맞는 벽지며 이채로운 천정조명등이 친어버이의 다심한 사랑을 가슴뜨겁게 전해준다.

어찌 치료실들만이랴.

여러가지 유희시설들이 갖추어진 어린이놀이장에 들어서면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에 가슴이 젖어든다.

현관에 들어서면 은근하면서도 밝은 조명빛이 찾아오는 사람들을 정답게 반겨맞아준다. 앉으면 푹신한 의자요, 바라보면 친근한 상식소개판이 눈길을 끄는 대기실들은 또 얼마나 아늑한가.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누구나 리용할수 있게 여러가지 구강위생도구들과 약품들을 충분히 갖추어놓고 봉사해주는 상점과 약국도 특색있다.

치료를 받고 나서면 여러가지 나무와 꽃관목이 우거지고 사철 푸른잔디밭이 펼쳐진 공원같은 야외휴식터가 기다린다.

참으로 환경도 제일, 설비도 으뜸인 류경구강병원이 뜻깊은 10월에 자식을 부르는 어머니의 두팔처럼 사랑의 큰 문을 활짝 열었다.

본사기자

제6차 동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였던
우리 선수들 귀국

중국 천진에서 진행된 제6차 동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였던 우리 선수들이 17일 귀국하였다.

동아시아에 위치한 나라와 지역의 선수들 수천명이 참가한 이번 경기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은 훌륭한 경기성과로 조국과 인민의 기대에 보답할 일념을 안고 평시에 련마한 높은 기술, 완강한 투지를 남김없이 발휘하여 금메달 8개, 은메달 12개, 동메달 22개를 획득하였다.

전련맹전으로 진행된 축구경기에서 우리의 미더운 남녀축구선수들은 집단주의에 기초한 높은 실력을 발휘하여 맞다든 팀들을 타승하고 동아시아축구의 패권을 쥠으로써 체육강국에로 지향하는 사회주의조선의 기상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림정심선수, 김은주선수는 녀자력기 69kg급, 75kg급경기에 출전하여 끌어올리기와 추켜올리기세부종목과 종합성적에서 모두 대회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쟁취하였으며 정춘미선수도 녀자력기 63kg급경기에서 우승의 영예를 떨치였다.

김혁봉, 김정선수들은 탁구혼성복식경기에서, 김설미선수는 녀자유술 48kg급경기에서, 홍은정선수는 체조 녀자조마운동에서 금메달을 획득함으로써 당창건 68돐을 성대히 경축한 긍지드높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기쁨을 안겨주었다.

평양역에는 수많은 체육인들과 선수들의 가족이 나와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영일동지와 리종무체육상, 오금철 조선인민군 상장, 체육부문 일군들이 승리의 메달들을 앞가슴에 번쩍이며 렬차에서 내리는 선수들을 뜨겁게 맞이하였다.

체육인들이 조국의 영예를 떨치고 돌아온 선수들과 감독들에게 꽃목걸이를 걸어주고 꽃다발을 안겨주면서 그들의 경기성과를 축하해주었다.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선수들과 감독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받들고 백두의 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세계의 하늘가에 람홍색공화국기를 더 높이 나붓기게 할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남자축구경기에서 영예의 우승을 쟁취한 선수들

우승의 영예를 쟁취한 선수들

녀자축구경기에서 영예의 우승을 쟁취한 선수들

각지에서
버섯생산기지건설과 개건공사 활발히 추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버섯은 온도와 습도를 잘 보장하고 공기갈이를 잘해주면 되기때문에 어디서나 쉽게 재배할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버섯의 나라로 만들데 대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과 당의 의도를 받들고 각지에서 버섯생산기지건설과 개건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있다.

자강도에서는 능력이 큰 강계버섯공장건설에 력량을 집중하여 10월 중순현재 총공사량의 80%를 해제끼였다.

도도시건설려단과 여러 공장, 기업소들에서 달려온 돌격대원들은 짧은 기간에 6 700여㎥의 토량을 처리하고 콩크리트타입공사를 진행하였다.

기본생산건물의 벽체축조를 끝내고 미장을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있다.

원료보관창고와 사무실을 비롯한 보조건물건설도 동시에 내밀고있다.

평안남도와 함경남도, 량강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마식령군인건설자들의 투쟁기풍으로 버섯공장건설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평성버섯공장건설에 떨쳐나선 평안남도대외건설사업소를 비롯한 도안의 기관, 기업소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이겨내며 총공사량의 70%를 해제끼였다.

인민생활향상에 기여할 버섯공장을 새롭게 일떠세울 목표밑에 함흥시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기초굴착을 끝내고 벽체쌓기를 불이 번쩍 나게 다그치고있다.

단천시와 영광, 함주, 금야, 태천군을 비롯한 각지시, 군들에서도 버섯공장과 버섯재배기지건설 및 개건공사를 힘차게 내밀고있다.

개성시에서는 버섯공장건물을 종전보다 1.5배로 확장하는 한편 생산에 필요한 기질도 동시에 충분히 마련하고있다.

고원군에서는 버섯공장건설에 박차를 가하면서 폐기질과 알곡먹이를 배합하여 집짐승먹이로 리용하는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준비사업도 착실히 해나가고있다.

초산군에서는 이미 있던 버섯공장을 개건보수하는것과 함께 야외재배장을 특색있게 건설하여 생산능력을 늘이고있으며 룡림군에서는 갱도식버섯재배장을, 위원, 중강, 고풍군들에서는 낡은 건물들을 대담하게 털어버리고 버섯공장을 새로 건설하는 공사를 힘있게 내밀고있다.

능력이 큰 버섯공장을 보란듯이 일떠세운 안주시에서는 지방에 흔한 자재와 원료로 버섯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투쟁의 노래 부르며 행복넘친 래일을 앞당겨오리

세포등판개간전투에 참가한 황해남도려단 돌격대원들의 공연을 보고

얼마전 평양시의 청년중앙회관에서는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세포등판건설에 참가한 황해남도려단 돌격대원들이 출연하는 예술공연이 진행되였다.

공연날자는 비록 길지 않았어도 바람세찬 세포등판을 사회주의락원으로 꾸려가는 개척자들의 혁명적신념과 랑만이 굽이치는것으로 하여 공연은 관중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붉은 오각별빛나는 모자를 쓴 구리빛 얼굴의 돌격대원들이 언땅을 파제끼고 새싹을 키워온 투쟁의 나날에 있었던 이야기들과 랑만넘친 생활을 노래로 펼친 공연을 보면서 사람들은 자연의 광풍을 이겨내고 억세게 성장한 개척자들의 미더운 모습을 받아안게 되였다.

배낭 하나만을 메고 정든 고향과 일터를 떠난 그들이 일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위훈의 창조자가 되여 수도의 극장무대에서 마음껏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당의 령도밑에 산천도 사람도 몰라보게 변한다는 시대의 진리를 다시금 깊이 새기게 되였다.

우리 인민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려는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해 전국각지에서 달려온 돌격대원들에게 있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호소문은 심장에 불을 다는 나팔소리와도 같았다. 하여 《마식령속도》창조에 세포등판속도창조로 화답하자는 개척자들의 신념의 웨침이 울려퍼지였고 세포등판은 적진을 들부시고 승리의 기발을 꽂기 위한 격전장마냥 더욱 부글부글 끓어번지였다.

《목표는 강성대국 희망봉이다 표대는 주체위업 승리봉이다》라고 노래한 시대의 진군가 《공격전이다》를 붉은 기높이 힘차게 불러온 돌격대원들은 그날의 투쟁모습을 그대로 무대에 올리였다.

세포등판건설은 한해에 1 000정보씩 개간해도 기적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말대로 한다면 50년이 걸려야 하는 방대한 공사량이다. 인간의 힘과 의지를 시험하는 대자연개조전투에서 돌격대원들이 간직한 불굴의 정신력의 핵은 무엇이고 혁명적랑만을 북돋아준 래일은 과연 어떤것이던가.

그 위대한 힘을 우리는 대화시 《경애하는 원수님과 세포등판》에서 가슴뜨겁게 절감하고있다.

예로부터 바람세찬 불모의 땅으로 불리우던 세포땅도 내 나라의 귀중한 한 부분이라고 하시며 인민의 행복넘친 웃음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하시려 그토록 마음쓰시고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이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이 깃들어있고 사회주의와 사보주의와의 첨예한 대결장인 세포땅에서 기어이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만세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하기 위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발기하시고 령도하시는 세포등판건설이다. 멀고 험한 전선길에서도 애국의 구슬땀이 슴배인 비옥한 대지에 무연하게 펼쳐진 골판을 오래도록 바라보시며 개척자들의 위훈을 그토록 높이 평가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은 세포등판건설자들의 불굴의 정신력의 원천으로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애국의 뜻으로 날과 달을 위훈으로 수놓아온 세포등판개척자들은 시대의 명곡 《조국찬가》를 격정속에 부르고있다.

그림같이 황홀하여 눈이 부신 땅을 위해 세포등판개척자들은 자기의 모든것을 바치였으며 오늘은 내 나라의 푸른 하늘아래에 희한한 풍경을 펼쳐가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조국찬가》를 부르고있는것이다.

황해남도려단의 전투원들만이 아닌 전체 개척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발걸음에 보폭을 맞추며 시련과 난관을 뚫고나갔으며 원수님께서 안겨주신 랑만으로 바람소리만이 울리던 등판에 위훈의 노래가 울려퍼지게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악기를 안고 개척자들이 부르는 열정과 랑만이 넘친 노래를 들으며 사람들은 걸음걸음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받들어온 개척자들의 자욱자욱을 뜨겁게 받아안는것이다.

재담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3중창이야기 《내 조국을 아름답게 꾸리자》, 노래련곡 《내 고향의 메아리》를 비롯한 작품들은 그 어떤 꾸밈도 없는 세포등판건설에 참가한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투쟁기풍이며 랑만넘친 생활의 반영이다.

하기에 공연을 보면서 사람들은 당이 준 전투명령을 피끓는 심장을 바치여 결사관철해나가는 개척자들의 숭고한 정신세계에 자신들을 비추어보는것이다.

세포땅은 조국의 한 부분이다. 그러나 오늘은 여기에 온 나라에서 모여온 개척자들로 흥성거리고있으며 그들은 서로 동지가 되고 한식솔이 되여 날에날마다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가고있다.

바로 여기에 내 나라의 대자연개조전투의 참모습이 있고 위력이 있는것이다.

대자연을 개조하는 거창한 투쟁속에서 동지애의 화폭을 펼쳐주시고 혈연의 정을 꽃피워주시는분은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라는것을 실재한 사실을 가지고 형상한것으로 하여 공연은 커다란 감화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없이 넓고 따뜻한 품속에서 평범한 돌격대원이 로력영웅이 되고 영웅의 자식이 혁명학원으로 떠나는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담은 시이야기와 노래 《운명도 미래도 맡긴분》.

예로부터 어렵고 궂은일로 일러왔으며 오늘도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돈을 많이 준다는 광고밑에 벌리는것이 대자연개조공사이다. 그러나 사랑과 믿음, 희망찬 래일에 대한 확신을 안고 전인민적투쟁으로 벌리는것이 우리 나라의 대자연개조전투이다.

그 빛나는 력사와 전통을 말해주는것이 온 나라에 숲을 이룬 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며 수도의 극장무대에 울려퍼지는 개척자들의 노래이다.

이 땅에 울려퍼지는 개척자들의 노래는 어제도 오늘도 위대한 수령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의 노래이며 세기를 주름잡는 조선의 속도를 창조하려는 맹세의 노래이다.

당의 구상과 의도를 충직하게 받드는 길에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는것을 힘있게 구가한 여기에 세포등판개척자들의 공연이 가지는 의의가 있는것이다.

시대의 축복받은 이런 미더운 개척자들이 있기에 세포등판건설전투승리의 환호성이 터져오를 그날은 앞당겨올것이며 내 나라는 끝없이 부강번영하게 될것이다.

차 수

일군이 설 자리

재령군 굴해리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앉아서 나라일을 걱정이나 하는 우국지사가 될것이 아니라 자기 한몸을 내대여 조국을 받드는 참다운 애국자가 되여야 합니다.》

재령군 굴해리당위원회에서 한달동안에 리자체의 힘으로 여러동의 살림집을 새로 건설할것을 결정하고 일판을 벌리였을 때의 일이다.

처음에는 박력있게 진행되던 건설이 날이 감에 따라 일정대로 진척되지 못하였다.

목재와 세멘트를 비롯하여 부족되는 건설자재가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그러자 일부 사람들속에서는 영농시기도 박두해오는데 건설을 꽤 한달동안에 해낼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그때 리당일군은 자기가 어떤 위치에 서야 하는가를 새삼스럽게 자각하게 되였다.

리당비서 윤기철동무는 농장원들과 함께 리에서 수십리 떨어진 림지로 향했다.

추위는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하지만 리당일군은 림지에서 농장원들과 함께 어려운 조건을 이겨내며 힘겨운 전투를 벌려 통나무들을 리에까지 무사히 운반해왔다. 그는 또한 살림집의 기초를 쌓는데 쓰이게 될 돌이 부족되자 두팔을 걷어붙이고 농장원들과 함께 찬바람부는 강가에 나가 돌을 채취하였다. 그리고 부족되는 세멘트도 끝내 해결하였다.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그러다 쓰러지면 어쩌겠는가고 걱정할 때마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말하군 하였다.

《내가 좀 더 일찌기 대오의 앞장에서 걸린 문제들을 풀었더라면 우리 굴해리사람들이 더 유족한 생활을 누릴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에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농장원들에게 자기 힘을 믿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면 얼마든지 리를 훌륭히 꾸릴수 있다고 하면서 남먼저 일손을 잡군 하였다.

그에 고무된 리안의 당원들과 농장원들은 분발하였다.

농장자체의 힘으로 그들은 한달동안에 살림집건설을 끝내고야말았다. 그때부터 굴해리에서는 주어진 조건을 따지며 이것이 걸렸소, 저것이 걸렸소 하던 일들이 사라지고 농장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꾸리기 위한 사업과 당면한 영농전투들이 더욱 힘있게 진행되였다.

재령군 굴해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알곡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는 길은 오직 과학농사를 짓는데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여기에 큰 힘을 넣었다.

리당위원회일군들은 이때에도 과학농사의 앞장에서 대중을 이끌어나갔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관을 심장에 새겨안고 이곳 리당위원회일군들은 오늘도 전진하는 대오의 앞자리에 자기 위치를 정하고 인민을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고있다.

본사기자 채 인 철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

안악군 신촌리당위원회 일군들은 당면한 영농전투의 앞장에서 진격로를 열어나가며 리안의 일군들과 당원들, 농장원들을 올해의 총돌격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농장에서 가을걷이전투가 시작된 날이였다. 이른아침 포전으로 나오던 제2작업반의 농장원들은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아직 날도 채 밝기 전인데 포전에서는 벌써 여러 사람들이 승벽내기로 가을걷이전투를 벌리고있는것이였다. 가까이 다가가보니 그들은 다름아닌 리당일군들이였다.

포전에는 세차게 나붓기는 붉은기들과 가을걷이전투에로 힘있게 추동하는 구호들도 세워져있었다. 리당일군들의 말없는 이신작칙은 농장원들에게 커다란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이날 제2작업반의 농장원들은 가을걷이전투의 첫날부터 실적을 부쩍 올리였다.

리당위원회일군들은 들끓는 포전들에서 농장원들에게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드높이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최후돌격전이 벌어지는 격동적인 사실들을 실감있게 이야기해주면서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고있다.

리당일군들의 이런 힘있는 정치사업에 고무되여 제4, 8, 12작업반을 비롯한 리안의 모든 작업반의 농장원들은 당면한 영농전투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로농통신원 렴 창 성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외국손님들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17일 가꼬쏘 쟝 클로드문화 및 예술상을 단장으로 하는 꽁고공화국 정부대표단을 비롯한 외국손님들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손님들은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에서 그들은 대원수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손님들은 혼장보존실들, 울음홀과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렬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방문록에 글을 남기였다.

꽁고공화국 정부대표단 단장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시대와 인류앞에 커다란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고 썼다.

조선로동당창건 68돐에 즈음하여 꾸바특명전권대사 연회 마련

조선로동당창건 68돐에 즈음하여 헤르만 에르민 페라스 알바레스 주조 꾸바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17일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영일동지와 박근광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초대되였다.

꾸바공화국대사관 성원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헤르만 에르민 페라스 알바레스특명전권대사가 연설하였다.

그는 조선로동당창건 68돐을 축하한다고 하면서 두 나라 당사이의 친선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키는것은 우리 최고령도자들의 결심이라고 말하였다.

선대수령들의 깊은 관심속에 마련된 두 당,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형제적인 친선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갈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존경하는 **김정은**원수님과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통일된 강성국가를 건설할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꾸바공산당과 정부의 이름으로 조선인민의 모든 리상과 사회주의의 대표자인 조선로동당이 앞으로도 더욱 강화발전되기를 충심으로 축원한다고 그는 말하였다.

다음으로 김영일동지가 연설하였다.

그는 조선과 꾸바 두 당,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관계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존경하는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 라울 까스뜨로 루쓰동지와 맺으신 각별한 동지적관계이라고 말하였다.

반제반미투쟁과 사회주의를 위한 공동투쟁속에서 맺어지고 끊임없이 강화발전되여온 우리 두 당,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는 영원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나라의 자주권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한 꾸바당과 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낼것이라고 말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와 라울 까스뜨로 루쓰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조선과 꾸바사이의 불패의 친선단결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세계보건기구대표단 여러곳 참관

세계보건기구대표단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 참관

쌈리 플리안방창 동남아시아지역사무소 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세계보건기구대표단이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를 참관하였다. 그들은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정치와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속에 녀성들을 위한 종합적인 의료봉사기지, 과학연구기지로 훌륭히 일떠선 연구소의 여러곳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손님들은 또한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도서관을 참관하였다. 전자열람실과 콤퓨터강의실, 원격강의실, 학술교류실 등 최첨단과학기술지식습득에 필요한 조건이 그쯘히 갖추어진데 대하여 감탄을 표시하였다.

이밖에 대표단은 향산군인민병원 등을 참관하였다.

우리 나라와 몽골사이의 외교관계설정 65돐에 즈음하여 몽골에서 연회 마련

우리 나라와 몽골사이의 외교관계설정 65돐에 즈음하여 15일 몽골대외관계상이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몽골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초대되였으며 몽골국가대회의 부의장, 문화체육관광상, 공업 및 농업성 부상, 평화친선련맹 총재 등 각계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짜히아긴 엘베그도르쥐대통령의 건강을 축원하여,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도이췰란드특명전권대사 국경절에 즈음하여 연회 마련

국경절에 즈음하여 토마스 쇄퍼 주조 도이췰란드련방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17일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박길연 외무성 부상, 오룡철 무역성 부상, 관계부문 일군들과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국제기구대표부성원들이 초대되였다.

도이췰란드련방공화국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도이췰란드련방공화국 대통령 요아힘 가우크각하의 건강을 축원하여, 조선과 도이췰란드사이의 친선협조관계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조선중앙통신】

특수경제지대개발에 관한 평양국제토론회 진행

조선경제개발협회가 주최하는 특수경제지대개발에 관한 평양국제토론회가 16일과 17일 양각도국제호텔에서 진행되였다.

토론회에는 리철석부회장을 비롯한 조선경제개발협회 일군들, **김일성**종합대학, 인민경제대학, 정준택원산경제대학, 사회과학원 등 여러 단위의 교수, 경제전문가들, 관계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박경애 카나다 브리티쉬 콜럼비아종합대학 교수와 카나다, 말레이시아, 미국, 웰남, 인디아, 중국의 권위있는 경제학교수들, 전문가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리철석부회장과 박경애교수가 축하연설을 하였다.

연설자들은 토론회의 성과적인 개최를 열렬히 축하하고 특수경제지대개발과 관리운영에서 서로의 경험교환과 협조의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번 토론회가 전문가들의 안목을 넓히고 개발사업개선에 도움을 주며 국제적교류와 협력을 도모하는데 훌륭한 기여를 하게 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토론회에서는 우리 나라 특수경제지대의 현 실태와 발전전망, 법률체계에 대하여 소개되고 국제적인 경제특구, 수출가공구들의 특징, 개발경험, 특수경제지대들이 해당 나라의 전반적경제발전과 투자유치에서 노는 역할, 정부의 관리방법에 대한 해박한 견해들이 교환되였으며 우리 나라에서 특수경제지대발전을 위한 활동방안들이 토의되였다.

토론회는 특수경제지대개발과 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유익한 의견들을 나누고 실천적경험과 지식을 체득하는 의의있는 계기로 되였다.

유럽나라들을 방문하는 외무성대표단 출발

유럽나라들을 방문하기 위해 궁석웅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외무성대표단이 17일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하였다. 비행장에서 관계부문 일군과 주조 로므니아 림시대리대사가 전송하였다.

프랑스 여러 정당출신 국회 상원 의원들의 조선연구그루빠대표단 귀국

사회당출신 국회 상원 의원인 쟝 끌로드 프레꽁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프랑스 여러 정당출신 국회 상원 의원들의 조선연구그루빠대표단이 17일 귀국하였다.

비행장에서 리영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전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애착심이 커야 더 많은 땀을 바친다

인흥장공장 지배인 주간흠동무와 종업원들

설이라고는 해본 경험이 없는 녀성로력이였던것이다.

지배인은 구태여 긴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일터의 래일을 위해 모두가 진정을 바치자는 짧은 한마디로 하고싶은 많은 말을 대신했을뿐이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여러 건물들을 새로 일떠세우기 위한 전투가 벌어졌다. 생산은 생산대로 내밀면서 건설을 동시에 진행한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한kg의 세멘트와 강재, 한㎥의 목재가 살점처럼 귀했다. 그렇다고 당장 어디에서 뚝 떼여다 쓸 여유가 있는것도 아니였다. 일군들은 자재구입을 위해 발이 닳도록 뛰여다녔고 종업원들은 물론 가족들까지 강가에 나가 혼석을 채취하느라 시간가는줄 몰랐다.

2층짜리 생산건물공사가 한창 벌어지던 어느날이였다. 지배인은 골조공사에 세멘트블로크와 연재블로크를 함께 리용할수 있는 안을 내놓았다. 그렇게 되면 세멘트를 3분의 1이나 절약할수 있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기웃거렸다. 건물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것이였다.

초급당비서 김성권동무와 지배인은 여러 기술자들과 함께 며칠동안 탐구와 시험을 거듭하였다. 그 과정에 연재와 기타 다른 성분들의 합리적인 혼합비률을 찾아내는데 성공하게 되였다.

며칠후 큼직한 함마를 손에 쥔 지배인이 종업원들앞에 나섰다. 블로크는 내리쳐도 끄떡없었다. 생산과정에 나오는 연재는 이렇게 효과적으로 쓰이게 되였으며 종업원들은 자력갱생이라는 말의 의미를 또 한번 새기게 되였다.

20여정보의 원료기지를 새로 조성하기 위한 전투도 그러했다. 돌밭을 통채로 들추어내고 부침땅을 조성하는 일은 자연과의 치렬한 격전이였다. 겨울이면 주변에서 날아와 쌓인 모래를 거두어내기 위해 강추위속에서 맞들이전을 들이대고 여름이면 큰물에 곡식이 잠길세라 물도랑을 째주며 바쳐온 이들의 땀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겠는가.

그 하루하루는 일터의 래일을 기어이 제손으로 가꾸어가기 위한 애국의 한걸음한걸음이였고 그 길에서 순간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신념과 의지의 련속이였다.

공장의 일군들과 함께 앞선 여러 단위들을 참관하는 과정에 종업원들의 시야는 더욱 넓어졌고 하루빨리 그 단위들을 따라 앞설 경쟁심이 모두의 가슴마다에 자리잡게 되였다.

또다시 기술개건전투가 벌어졌다. 하지만 공장의 기술력량은 결정적으로 부족했다. 남이 해줄것을 앉아서 기다린다면 목표한 기일안에 기술개건을 실현할수 없었다.

제힘을 굳게 믿고 떨쳐나선 대오의 앞장에는 일군들이 서있었다. 필요한 기술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백리길을 다녀온 때도 많았다. 그 나날 공장의 종업원들이 자체로 제작한 설비는 40여대에 달한다.

자력갱생의 흔적이 력력한 과자로, 물엿진공농축기, 간장, 된장생산공정 등을 바라보며 오늘도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이렇게 말하군 한다.

이 손은 어디에다 무엇을 달라고 내미는 손이 아니라 제힘으로 창조하는 손이라고.

나날이 일신되여가는 공장의 모습과 함께 일터에 대한 모두의 애착심도 날로 커만 갔다.

애착심, 그것을 푸르른 나무의 뿌리에 비긴다면 그 뿌리를 적셔주는 자양분은 무엇인가.

공장의 일군들은 자기 일터에서 묵묵히 성실히 일해가고있는 종업원들의 마음속에 자그마한 고충이 있을세라 제때에 풀어주고 하나라도 더 좋은것을 안겨주기 위해 늘 왼심을 썼다.

부모없는 종업원들을 위해 아담한 숙소를 마련해주고 그들의 생활을 구석구석까지 돌봐주고있는 사실도 있고 수십동의 종업원살림집을 지어주기 위해 앞채를 메고 내달린 실례도 많다. 여러 지방에 대한 출장길에서도 종업원들의 모습을 그려보며 많은 상품들을 구입하여 수십가지씩 안겨준 일도 있다.

뿌리없는 나무를 생각할수 없듯이 바쳐온 땀과 열정이 없이 일터의 새 모습을 바랄수 없으며 더 좋은 래일도 기대할수 없다.

그렇다.

애착심이 커야 더 많은 땀을 바친다.

그리 크지 않은 지방공업공장이였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공장을 돌아보면서 오늘날 자기 일터에 대한 애착심을 지니고 맡은 일을 성실히 해나가는 사람들이 참다운 애국자들이라는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였다.

본사기자 김 충 성

사회주의문명의 혜택을 한껏 누려가는 인민의 기쁨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에 의하여 또 하나의 인민사랑의 결정체로 일떠선 통일거리운동쎈터가 준공된 때로부터 1년이 지났다.

통일거리운동쎈터는 준공후 운영 첫날부터 이곳을 찾는 근로인민들로 련일 흥성이였다.

화려하게 장식된 운동실과 1층과 2층의 홀들에 들어서는 사람들마다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건강운동실들에서 그들은 현대적인 달리기운동기재, 자전거운동기재, 노젓기운동기재들에 올라 질주하기도 하면서 마음껏 땀을 흘리며 체력을 단련하고있다.

팔다리운동기재, 허리근육발달운동기재, 상반신발달운동기재를 비롯한 각 부위별육체훈련기재들은 건강한 몸으로 강성국가건설에 이바지하려는 리용자들의 열의를 한껏 충족시켜주고있다.

온몸을 거뜬하게 하는 건강회복실과 수중초음파실들에서 온갖 피로를 풀고 문을 나서는 사람들의 얼굴마다에는 행복의 기쁨과 생의 희열과 랑만, 활력이 한껏 넘쳐흐르고있다.

탁구장과 률동보급실에서도 시원한 음료로 땀을 들이는 청량음료점에서도 사회주의문명의 혜택속에 복된 삶을 누려가는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그칠줄 모르고있다.

유능한 의학 및 치료체육전문가들의 따뜻한 웃음과 과학적이며 성의있는 봉사는 이곳을 즐겨찾는 리용자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독자의 편지

이런 병사를 자랑합니다

우리 인민반의 주민들이 잊지 못하는 한 군인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조선인민내무군 리성일소속부대 병사 김범주**동무입니다.

어느날 우리 인민반의 한 집에 뜻밖의 일이 생겼을 때였습니다. 그날 임무수행중 마을앞을 지나가다가 한달음에 달려온 김범주병사는 한몸을 서슴없이 내대여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초상화를 안전하게 보위하였습니다.

어디에서 복무하는 누구인가고 묻는 우리에게 그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병사라는 한마디 말을 남기고 총총히 떠나갔습니다. 그날 이름과 소속도 밝히지 않고 떠나간 병사의 희생적인 소행을 두고 주민들모두가 우리 군대가 정말 다르다고 감탄하였습니다.

내무군군인들의 숭고한 정신세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어도 실지 체험하고보니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평범한 나날의 한순간에 있은 일이지만 김범주병사가 보여준 수령결사옹위정신은 우리 주민들을 크게 격동시키고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병사들이 있어 우리 조국이 그처럼 굳건하다고 소리높이 웨치고싶습니다.

모란봉구역 인흥1동 43 인민반 정 인 향

시대와 민심에 역행하면 파멸을 면할수 없다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하루빨리 북남관계가 개선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평화와 통일위업실현의 전환적국면이 열리기를 고대하고있다. 그러나 남조선에서는 민족의 지향과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반통일대결책동이 의연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다. 피뢰패당은 북남대화를 불순한 대결목적에 악용하면서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심히 해쳤으며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엄중히 중상모독하는것으로 북남관계를 위기의 벼랑턱에로 몰아가고있다. 한편 《맞춤형억제전략》확정, 련합해상훈련 등 미국과의 반공화국군사공조강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조선반도의 긴장을 극도로 격화시키고있다. 피뢰당국의 책동으로 하여 북남관계는 파국에 처하였으며 나라의 평화가 심각히 위협당하고있다. 5년나마 극도의 대결상태에 빠져있던 북남관계가 피뢰들의 책동에 의해 개선의 길에서 또다시 벗어나 위기에로 치닫고있는것은 실로 통탄할 일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괴뢰들의 동족대결책동은 북남관계의 개선으로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새로운 전기를 열어나가려는 온 겨레의 지향에 전적으로 배치되는 반통일망동이다.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북남관계가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고대하고있다. 북과 남은 한피줄을 이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문제해결의 기본방식은 마땅히 대화와 협상으로 되여야 한다. 6.15공동선언발표이후 북과 남은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실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으로 슬기롭게 풀어나갔다. 이것은 북과 남이 비록 사상과 제도의 차이는 있지만 민족의 요구와 리익을 존중하면서 의사와 능력을 합친다면 북남관계가 능히 순조롭게 발전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로부터 우리는 현 괴뢰당국자들이 《신뢰프로세스》니, 《원칙》이니 하면서 북남대화에 한사코 장애를 조성할 때에도 모든것을 참고 아량과 선의를 보이며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의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우리가 개성공업지구정상화와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 금강산관광재개를 위해 온갖 성의와 노력을 기울이고 대범한 조치들을 취한것은 전적으로 조국통일에 대한 겨레의 지향과 시대적요구에 모든것을 복종시켜나가려는 애국애족적인 의지의 발현이였다. 남조선괴뢰들이 민족의 지향과 념원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우리의 성의를 받아들였어야 하며 그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나 그 누구의 《변화》와 《체제통일》을 추구한 괴뢰들은 북남관계개선을 달가와하지 않으면서 대결소동에 공공연히 나섰다. 알려진바와 같이 괴뢰보수패당은 북남관계에서의 일련의 성과를 두고 가소롭게도 《신뢰프로세스의 결과》니, 《원칙론의 승리》니 하고 우리를 모독하며 대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는가 하면 그로 하여 북남관계가 위기에 처하자 책임을 느낄 대신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반인륜》이니, 《대북원칙고수》니 하고 더욱 도발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나중에는 《존엄만 내세운다.》느니 뭐니 하는 악담까지 줴쳐대며 우리의 최고존엄까지 걸고드는 망동을 부리였다. 괴뢰보수언론들도 우리의 존엄과 체제, 일심단결을 악의에 차서 헐뜯으면서 당국이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대결을 적극 부추기였다.

괴뢰패당은 입만 벌리면 《신뢰구축》이니, 《약속》이니 하고 곧잘 떠들고있다. 하지만 괴뢰들의 망동은 북남사이에 신뢰를 구축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신과 적대감만을 증대시킬뿐이다.

그것이 북남관계를 완전히 파탄시키고 대결을 격화시키려는 범죄적기도의 발로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괴뢰들이 추구하는 속심은 오로지 북남관계를 개선하자는것이 아니라 우리를 해치고 체제대결야망을 실현하자는것뿐이다. 이것은 시대의 흐름과 온 겨레의 지향에 역행하는 범죄적망동으로서 추호도 용납될수 없다.

남조선괴뢰들의 동족대결책동은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대한 우리 민족의 간절한 념원에 칼질을 하는 극악한 반민족적범죄행위이다.

외세에 의해 둘로 갈라져 살면서 항시적인 전쟁위험을 당해온 우리 민족은 평화와 평화통일을 누구보다 갈망하고있다. 바로 그런것으로 하여 최근 우리 공화국이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취한 적극적인 조치들이 온 겨레의 일치한 지지와 환영을 불러일으킨것이다. 북과 남은 평화와 평화통일에 대한 겨레의 념원을 실현할 책임을 지니고있다.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실현하자면 무엇보다도 남조선에서 동족을 반대하는 군사적대결소동이 종식되여야 한다.

그러나 겨레의 평화지향은 남조선괴뢰들의 호전적야망에 의해 무참히 유린되고있다. 폭로된바와 같이 괴뢰들은 최근 《을지 프리덤 가디언》, 련합해상훈련을 비롯한 각종 명목의 북침합동군사연습들을 끊임없이 벌려놓고 미국의 핵전략폭격기, 핵항공모함을 비롯한 악명높은 핵전쟁장비들을 련속 남조선에 끌어들이면서 조선반도의 평화를 엄중히 위협하였다. 문제는 괴뢰패당의 북침핵전쟁도발소동이 날로 더욱 위험한 단계에 들어서고있는것이다. 괴뢰호전광들은 지난 10월 2일 미국과 제45차 《년례안보협의회》라는것을 벌려놓고 그 무슨 《북핵억제》니, 《위협대비》니 하는 황당한 나발을 불어대면서 우리에 대한 핵선제타격을 공식화한 《맞춤형억제전략》이라는것을 정식 꾸며냈다. 이것이 우리에 대한 로골적인 핵위협으로서 평화와 평화통일에 대한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이 광란적으로 벌려놓은 도발적인 불장난들은 우리 공화국에 불의적인 핵선제공격을 가하기 위한 《맞춤형억제전략》에 따른것이다. 괴뢰들이 미국과 함께 《맞춤형억제전략》을 꾸며내고 그것을 각종 북침합동군사연습들에 적용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 핵전쟁발발위험은 극도로 고조되고있다.

반공화국대결야망만 실현할수 있다면 시대의 흐름도 안중에 없고 민족의 지향도 서슴없이 짓밟는 괴뢰들의 분별없는 범죄적망동으로 하여 북남관계는 다시금 파국에 처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심히 위협당하고있다.

제반 사태는 남조선괴뢰들이 대세의 흐름에 악랄하게 역행하면서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에 대한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을 무참히 란도질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남조선괴뢰들은 시대와 민심에 역행하는 경우 파멸의 운명을 면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현 괴뢰당국자가 집권 8개월동안 민심의 목소리에 귀를 틀어막고 제멋대로 날치는 오만과 독선, 《불통》의 고집스러운 반역정책에 매달린것으로 하여 지금 최악의 집권위기에 처하고있는것도 그것을 립증해주고있다.

남조선괴뢰들은 지금과 같이 시대의 흐름과 온 민족의 지향을 거스르며 반공화국대결에 계속 미쳐날뛸 경우 반드시 수치스러운 종말의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은 정 철

대결몽유병환자의 잠꼬대

요즘 괴뢰통일부 장관 류길재가 우리를 시비질하고 저들의 대결정책을 변호하는 놀음에 헛된 시간을 쏟아붓고있다. 며칠전 《국회》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나타난 류길재는 그 누구의 《끊임없는 핵개발》과 《지속적인 비난》이 《남북관계를 랭각》시키고있다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늘어놓았다. 한편 《대화의 문》이니, 《대화와 협력을 통한 신뢰》니 하면서 너스레를 떨기도 하였다. 이날 류길재는 《진정한 발전의 길》이니, 《민족의 미래를 위한 길》이니 하는것을 입에 올리면서 《옳바른 선택》을 하여야 한다고 주제넘은 훈시질까지 하였다. 역도의 망발은 북남관계의 파탄과 조선반도긴장격화의 책임을 모면하고 여론을 오도하여 대결정책을 한사코 실현하기 위한 실로 교활한 수작이 아닐수 없다. 흑백을 뒤집는데 이골이 난 괴뢰패당만이 이따위 파렴치한 궤변을 천연스럽게 늘어놓을수 있다.

이번에 류길재가 북남관계악화의 책임을 전가하려 하면서 《핵개발》이니 뭐니 하고 고아댄것은 철면피하기 그지없다. 오늘의 험악하기 그지없는 북남관계는 현 괴뢰집권세력이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대결정책을 고집스럽게 강행한탓에 초래된것이다. 최근에도 괴뢰들은 미핵항공모함전단을 끌어들여 북침전쟁도발책동에 광분하면서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있다. 우리의 억제력강화조치는 조선반도에서의 핵전쟁위험을 극도로 고조시키는 괴뢰패당의 무분별한 책동에 대처한 정당한 자위적조치이다. 류길재가 《지속적인 비난》이라고 트집잡는것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안에서나 밖에서나 동족을 걸고드는 쏠라닥질을 밥먹듯 하다 못해 감히 민족의 최고존엄마저 헐뜯는 천하의 무뢰한들이 무슨 체면에 그따위 헌수작질인가. 괴뢰들이 사태의 본질을 가리우면서 도적이 매를 들듯이 우리의 정당한 조치들을 북남관계악화와 억지로 결부시키려드는것은 실로 뻔뻔스럽기 그지없다. 사물현상의 원인과 결과도 판별할줄 모르는 류길재의 망발은 오히려 저들의 몽매성을 내외에 스스로 드러내놓는 꼴이 되였다.

역도가 이번에 《대화의 문》이니, 《협력》이니 하고 애써 억지미소를 지으며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무엇을 할것처럼 요사를 떨었는데 자나깨나 대결야망실현에 환장해 날뛰는자들에게 대화와 협력이라는것이 과연 어울리는가. 괴뢰패당의 그런 낯간지러운 타령에는 이제는 신물이 날 정도이다.

더우기 가소로운것은 류길재가 그 무슨 《주변정세의 변화》를 떠벌이며 《시대흐름인식》이요, 《옳바른 선택》이요 하고 감히 우리에게 무엇을 권고해보려고 꾀한것이다. 우리는 괴뢰들따위가 이러고저러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나아갈 길에 대해 너무도 잘 알고있다. 대세가 어떻게 변하고 시대가 어디로 흐르는지도 모르고 시대착오적인 대결몽유병에서 깨여나지 못한자들이 제 처지도 모르면서 남을 훈시하려들었으니 이 얼마나 웃기는노릇인가.

오늘 진정으로 민족의 미래를 위한 길은 조국통일을 이루는 길이다. 자주통일의 함성 드높은 속에 겨레의 마음이 하나로 되고 이 땅우에 평화번영의 밝은 서광이 비쳐들던 6.15통일시대는 민족의 미래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물음에 명백한 대답을 주었다. 그런데 민족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꼬물만 한 자격도 없는 극악한 대결광신자, 민족은 고사하고 초보적인 인륜도덕도 모르는 깡패무리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민족》이니, 《미래》니 하고 나발질한것은 조소를 자아낼뿐이다.

이렇게 낯간지러운 연극을 놀면서도 류길재는 대결적본색을 감추지 않았다. 역도가 이날 《국제사회와의 협력》으로 《북핵문제해결에서 전진》을 이루겠다고 떠든것은 외세와의 반공화국대결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우리를 기어이 고립압살하겠다는 흉심을 공공연히 드러낸것이다.

괴뢰패당이 《신뢰》의 비단보자기로 저들의 대결정책을 감싸면서 북남관계를 파괴한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발악하고있지만 소용이 없다.

반공화국대결에 미쳐날뛰는 민족반역의 무리들과 끝까지 결판을 보고야말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의지는 활화산처럼 불타오르고있다. 외세의존과 동족대결에 명줄을 걸고있는 괴뢰패당은 온 민족의 저주와 규탄을 면할수 없으며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허 영 민

《인권재판관》의 범죄적정체

여러달전에 터진 스노우덴사건을 계기로 미국의 인권침해행위들이 계속 폭로되고있다.

얼마전 미국 죠지 워싱톤종합대학의 국가안전보장공문서관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미국가안전보장국이 전쟁을 반대한 미국의 여러 활동가들의 말을 도청한 사실을 공개하였다. 그에 의하면 도청대상에는 국민의 민주주의적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활동한 종교인, 세계적인 프로권투강자 등 미국에서 이름이 크게 알려진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들어있었다. 《뾰족탑》이라는 암호로 명명된 도청작전은 당시 미국대통령 죤슨의 요구에 따라 벌어졌으며 1973년까지 계속되였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의 도청 및 감시활동이 새세기에 들어와서부터 시작된것이 아니라는것을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미국은 스노우덴사건이 터진 후 정보기관들이 《테로방지》를 위해 도청 및 감시활동을 하였다고 횡설수설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떠들어대고있는 《테로방지》라는것은 기만적인 구실에 불과하다. 미국은 반세기전에 벌써 자국민들과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도청 및 감시활동을 극비밀리에 벌려왔다.

미국정보기관들이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도청대상으로 정한 종교인, 체육인 등은 외국간첩도 아니고 테로와 같은 범죄를 저지를수 있는 위험요소도 가지고있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집권계층은 그들을 도청대상명단에 올려놓았다. 리유는 단 한가지이다. 그들이 미국의 침략적인 전쟁정책을 반대하였다는것이다.

침략전쟁을 중지할것을 요구하여 투쟁하는것은 매우 정당한것이며 세계평화를 위해 절실히 필요한것이다. 이에 대해 문제시할것은 하나도 없다. 미집권계층의 비호하에 정보기관들이 반전투쟁에 나선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도청 및 감시활동을 은밀히 벌렸다는것은 미국이야말로 가장 가혹한 인권침해국이고 매우 혹심한 민주주의 페허지대이라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오랜 기간 행정부의 지배주의적정치, 전쟁정책에 반기를 드는 사회활동가들에 대한 도청 및 감시활동을 일상적으로 벌려오고있다는것은 공개된 비밀이다. 오늘에 와서는 그 대상에 일반시민들까지 포함되고있다.

미국이 브라질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 프랑스외무성과 같은 다른 나라 국가기관들에 대한 비밀감시를 한것은 보다 엄중시해야 할 주권유린, 인권침해행위이다. 이것은 《테로방지》라는 말로 절대로 설명할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이때문에 미국은 골탕을 먹고있다. 브라질 등 많은 나라들과의 관계가 버그러지고있다. 그 나라들은 미국이 감행한 죄악들에 대해 항의하면서 똑똑히 설명해줄것을 강하게 요구하고있다.

로미관계도 복잡해지고있다. 미국이 림시망명한 스노우덴을 넘겨달라고 로씨야에 압력과 회유를 들이대고있지만 보기 좋게 거절당하고있다. 로씨야를 깔보면서 그 나라 사람들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해온 미국의 죄악에 대한 응당한 대접이라고 할수 있다.

미국은 인권과 민주주의, 자유 등을 놓고 다른 나라들에 삿대질할수 있는 자격도 체면도 없는 범죄국이다.

현세기에 들어와 판따나모의 미해군기지감옥과 이라크의 아부 그라이브형무소, 유럽나라들의 비밀감옥들에서 감행된 소름끼치는 고문행위들을 놓고 세계는 이미 미국이 극악한 인권범죄자라는 판결을 내렸다. 동맹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미국의 죄악을 놓고 얼굴을 붉혔다.

가소로운것은 인권, 민주주의, 자유 등에 대해 말할 자격도 체면도 전혀 없는 미국이 아직까지도 《인권재판관》행세를 하고있는것이다.

족제비도 낯짝이 있어 숨을 구멍을 가린다는 말이 있다.

엄중한 인권침해행위를 저지르고 세계에서 동네북처럼 두들겨맞고있는 주제에 창피와 수치도 모르고 인권 등에 대해 계속 횡설수설하는것을 보면 미국은 짐승보다 못한 철면피한이 아니면 분명 그 사고방식에 큰 고장이 생겼다. 제 잘못을 깨달을줄 모르고 파렴치하게 노는것도 일종의 정신병이라고 할수 있다.

미집권계층은 다른 나라들을 걸고들면서 못되게 놀것이 아니라 저들의 잘못된 사고방식부터 똑똑히 바로잡는것이 좋을것이다.

리 경 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보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더욱 악랄하게 감행되는 괴뢰정보원패거리들의 반공화국모략소동을 규탄하여 17일 보도 제1046호를 발표하였다.

보도는 다음과 같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6.15이후 움츠러들었던 괴뢰정보원이 때를 만났다는듯이 되살아나 제세상처럼 날치면서 《유신》파쑈독재를 부활시키고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가고있다.

그러한 망동은 군부깡패출신인 남재준놈이 정보원 원장으로 들어앉으면서 더욱 무지막지하게 감행되고있다.

얼마전 괴뢰정보원 원장 남재준놈은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라는데서 우리의 최고존엄을 걸고 북이 《3년내 무력통일을 공언했다.》느니 뭐니 하고 떠벌였는가 하면 《장거리미싸일추진체시험》이니, 《군단장급이상 44% 교체》니, 《신형방사포의 전진배치》니 뭐니 하고 마치 우리 내부정보자료를 알기나 하는것처럼 《증언》하는 놀음을 벌리였다.

한편 괴뢰정보원패거리들은 인간쓰레기들을 내세워 무슨 《수용소실태》니 뭐니 하는 얼토당토않은 모략자료를 내돌려 우리 공화국에 대한 영상을 흐리게 해보려고 어리석게 책동하고있다.

그동안 막뒤에서 동족대결모략소동을 일삼던 괴뢰정보원이 전면에 나서서 악질적으로 놀아대는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다.

그것은 반공화국모략기관으로서의 저들의 존재가치를 부각시켜 남조선에서 날로 높아가는 정보원해체요구를 무마시키고 괴뢰통치위기를 수습하며 북남사이에 대결을 더욱 격화시켜 조선반도정세를 극단으로 몰아가려는것이다.

괴뢰패당이 우리의 대화평화노력을 외면하고 북남관계를 또다시 파멸에로 몰아넣으며 미국핵항공모함까지 끌어들여 핵전쟁연습소동에 매달리다 못해 괴뢰정보원을 내세워 반공화국모략소동을 더욱 미친듯이 벌려놓고있는것은 우리에 대한 또 하나의 엄중한 도발이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내외여론에 대한 파렴치한 도전이다.

남조선재야와 언론, 전문가들도 괴뢰정보원패거리들의 터무니없는 모략소동에 대해 《정보원개혁론의를 잠재우기 위한 의도》, 《현 정권의 위기극복을 위한 계산된 행동》, 《대결고취를 위한 고도의 정치적행위》 등으로 비난하면서 커다란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지금 남조선은 과거 《유신정권》때의 《중앙정보부》시절로 완전히 되돌아가고있다.

괴뢰정보원깡패들이 괴뢰대통령선거에 로골적으로 개입하여 선거결과를 조작하는가 하면 감히 북남수뇌상봉담화록을 공개하는 망동짓을 감행하고 현북통일세력을 비롯한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탄압에 더욱 미쳐날뛰고있다.

이 모든 광란의 앞장에는 그 괴수 남재준놈이 서있다.

남재준은 박정희 《유신정권》의 퇴물로서 악명높은 대결광신자이다.

남재준놈에 의해 남조선은 더 아수라장이 되고 북남관계는 더욱 엉망진창이 되고있다.

자기 존재를 유지하기 위한 괴뢰정보원패거리들의 필사적인 몸부림으로 하여 더욱 곤경을 치르고있는것은 박근혜이다.

독재 《정권》유지를 위해 조작된 괴뢰정보원은 력대적으로 오히려 그 《정권》을 불행에 빠뜨린 화근이 되였다.

이전 《유신정권》의 비참한 말로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비근한 실례이다.

황아장사망신은 고불통이 시킨다고 이제라도 박근혜는 심각해지고있는 정치적위기에서 벗어나고 북남관계파국으로 인한 내외의 비난을 모면하려면 더 큰 화를 당하기 전에 남조선인민들의 요구대로 남재준을 제거하고 제명을 다 산 괴뢰정보원을 해체해야 한다.

내외의 공정한 여론은 괴뢰패당의 반공화국모략소동의 정체를 바로 보고 정보원깡패들이 내돌리는 반공화국모략자료를 멋없이 되받아넘겨 체면을 구기는 일이 없어야 하며 정보원해체를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를 적극 성원해야 할것이다.

괴뢰정보원은 남조선인민들과 내외여론의 한결같은 규탄과 배격으로 가장 수치스러운 파멸을 면치 못할것이다.

본사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성명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성명 《미국이 진정으로 조미관계개선에 관심이 있다면 대조선적대시정책부터 철회하여야 할것이다》를 12일과 13일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인떼르팍스통신, 《로씨야의 소리》방송, 엔떼웨TV방송, 신문들인 《웨체르냐야 모스크바》와 《끄메르싼뜨》, 인터네트통신들인 로스발뜨, 드니. 루, 인터네트신문 《브즈글랴드. 루》, 중국의 인터네트홈페지들인 동북망, 동북보도망, 수리아의 사나통신과 TV방송들, 타이신문 《방코크 포스트》, 레바논신문 《알 쥽후리아》, 쿠웨이트신문 《쿠웨이트 타임스》, 뛰르끼예신문 《자만》, 에짚트신문들인 《알 아흐바르》, 《에짚션 가제트》, 체스꼬의 체떼까통신, 영국신문 《타임스》, 프랑스신문 《피가로》, 우루과이신문 《라 후벤뚜드》, 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는 《조선 조미관계문제와 관련한 원칙적립장 천명》, 《조선 반도비핵화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있다고 주장》, 《조선 전면전쟁을 경고》 등의 제목으로 대변인성명을 전문 또는 요지로 전하였다.

10.4선언발표 6돐에 즈음하여 영국단체들 공동성명 발표

력사적인 10.4선언발표 6돐에 즈음하여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와 주체사상연구소조가 1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10.4선언이 채택발표된것은 조선통일운동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으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성명은 남조선괴뢰패당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행위와 반통일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여왔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최근 공화국은 남조선괴뢰들의 극악한 도발과 모략책동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평화를 위한 대범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아래 10.4선언을 리행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

【조선중앙통신】

조로외교관계설정 65돐기념 친선모임 로씨야에서 진행

조로외교관계설정 65돐에 즈음하여 로씨야 울라지보스또크에서 11일 친선모임이 진행되였다.

모임장소정면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모임장소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선군조선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 우리 인민의 슬기와 재능이 깃든 수공예품들이 전시되여있었다.

모임에는 로씨야 연해변강행정부와 립법회의, 울라지보스또크시행정부, 통일로씨야당 연해변강지부, 련방공산당 연해변강위원회, 정의의 로씨야당 연해변강지역위원회, 태평양함대의 인사들과 군중 그리고 나호드까주재 우리 나라 총령사와 총령사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전시품들을 돌아보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력사적인 로씨야원동지역 방문을 수록한 우리 나라 영화를 감상하였다.

연해변강행정부 국제협조 및 관광국 부국장은 로조인민들사이의 관계는 친선과 호상존중에 기초하여 발전하고있다, 두 나라사이에 새롭고 현실적요구에 부합되는 대화와 협조가 확대발전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로씨야련방공산당 연해변강위원회 제1비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회주의를 꿋꿋이 고수하고있는 나라는 조선이다.

앞으로 온 세계가 조선을 따라배울것이다.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그리고 조선인민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반드시 이룩될것이다.

이어 우리 나라 대표부성원들과 로씨야배우들이 출연하는 예술공연이 있었다.

참가자들은 두 나라사이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선의 정을 두터이하였다.

국제경기들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는 조선 중국신문의 글

중국의 《베이징일보》가 11일 제6차 동아시아경기대회에서 우리 나라 선수들이 거둔 성과를 소개하였다.

신문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제6차 동아시아경기대회 녀자축구경기가 11일 결속되였다.

조선녀자축구팀은 마지막으로 대전한 일본팀을 2:0으로 타승하고 3전3승의 성적으로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였다.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것은 우승한 조선선수들이 국기가 게양되고 국가가 울려퍼질 때마다 몹시 격동되여 뜨거운 눈물을 흘린것이다.

올림픽경기대회 등 큰 경기대회들에서 련이어 기적을 창조한것으로 하여 조선체육계는 력대로 인상적인 장면을 적지 않게 펼쳐보였다.

조선체육계는 줄곧 신비로운 존재로 간주되여왔다.

조선선수들이 천진에 도착하였을 때 큰 관심을 끌었다. 많은 기자들이 그들을 맞이하였다.

8일 력기경기에서 녀자 69kg급의 올림픽금메달수상자 림정심선수가 세부종목과 종합성적에서 대회신기록을 세웠으며 75kg급의 김은주선수가 우승하였다.

조선에서 체육선수들은 높은 대우를 받는다.

조선선수들은 높은 민족적사명감을 지니고있다.

그들은 경기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며 사람들을 놀래우는 조선의 힘을 보여주군 한다.

최근년간 조선은 국제경기들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조선은 2010년 월드컵경기대회에 참가하였고 런던올림픽경기대회때는 력기, 유술종목에서 4개의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김혁봉, 김정선수들은 올해에 진행된 세계탁구선수권대회 혼성복식경기에서 우승하였다.

제31차 동아시아경기협회 리사회회의 진행

제31차 동아시아경기협회 리사회회의가 얼마전 중국의 천진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협회소속 9개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동아시아경기협회규약수정초안》과 《협회 리사회성원들의 임기연장에 관한 제안》이 심의통과되였다.

동아시아경기대회는 1993년 중국의 상해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이래 현재까지 6차례 조직되였다.

새로운 체육발전추이에 맞게 동아시아경기협회 리사회는 올해 5월 《동아시아경기대회 개혁제안》을 통과시켰다.

그에 따라 동아시아경기대회를 동아시아청소년경기대회로 개칭하며 4년에 한차례씩 개최한다. 대회참가선수들의 나이는 원칙적으로 14~18살이다.

제6차 동아시아경기대회는 마지막 동아시아경기대회로 되며 제1차 동아시아청소년경기대회는 2019년에 열리게 된다.

환경개선에 도움을 주는 옥상록화

최근 세계적으로 도시에서의 옥상록화사업이 활발해지고있다. 옥상에 록지를 조성하면 열을 차단하고 온도를 낮출수 있으며 비물을 보존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할수도 있다. 뿐만아니라 아름다운 환경도 마련해줄수 있다.

옥상에 농장을 건설하여 거기서만도 30여종의 유기남새를 자래우는 실례도 있다.

도이췰란드에서는 12%의 건물들에 옥상록화를 실현하였다.

많은 나라들이 옥상록화를 환경개선을 위한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내세우고 이 사업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있다.

지 진

그리스의 크리트섬에서 12일 리히터척도로 6.5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진원은 섬지역 땅속 50km 되는 곳에 있었다.

한편 뉴질랜드에서 11일 리히터척도로 6.3의 지진이 일어났다. 진앙은 엘에스퍼랜스 록크로부터 동북쪽으로 87km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한다.

여러 나라에서 자연피해

—중국 절강성의 온주시에서 태풍피해를 입었다. 태풍으로 9일현재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5명이 행방불명되였다.

피해를 가시기 위한 긴급조치가 취해지고있다.

—필리핀의 중부와 남부지역에서 태풍피해가 확대되고있다. 태풍에 의한 큰물로 11일현재 사망자수가 20명으로 늘어나고 피해자수는 20만 7 900명에 달하였다.

한편 필리핀의 루쏜섬에 11일 태풍이 들이닥쳐 피해가 발생하였다.

12일현재 5명이 죽고 4명이 행방불명되였으며 2 000여명이 집을 잃었다. 또한 섬의 5개 주들에서 전력공급이 중단되고 도로들에서 통행이 금지되였다.

현지에서 긴급구제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인디아의 동부해안에 12일 열대성폭풍이 들이닥쳐 피해가 났다. 강한 폭풍으로 오리싸주와 안드라 쁘라데쉬주에서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약 100만명이 긴급대피하였으며 막대한 재산피해가 났다.

피해를 가시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이딸리아의 남부지역에서 8일 무더기비가 내려 피해를 입었다. 무더기비로 2명이 목숨을 잃고 3명이 행방불명되였으며 도로들이 차단되여 교통이 혼란상태에 빠졌다.

—도이췰란드의 남부지역에서 최근 많은 눈이 내려 피해가 났다.

갑자기 쏟아져내린 폭설로 11일현재 나무들이 넘어지고 주민지역들에 대한 전력공급이 중단되였으며 교육기관들이 문을 닫았다. 또한 도로들이 차단되는 등 교통이 혼란상태에 빠졌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도이췰란드에서 폭설

ㄱ-311630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